

---

# 2021년 경제전망

---

2020. 12. 17.

기 획 재 정 부

# 순서

I. 최근 경제동향 및 2020년 전망 .....	1
1. 경제성장 .....	1
2. 고용 .....	9
3. 소비자물가 및 주택시장 .....	10
II. 2021년 경제전망 .....	11
1. 대외여건 점검 .....	11
(1) 세계경제 .....	11
(2) 국제원자재 가격 .....	15
(3) 국제금융시장 .....	16
2. 국내경제 전망 .....	17
(1) 경제성장 .....	17
(2) 고용 .....	34
(3) 소비자물가 .....	37
III. 종합평가 .....	38
[별첨] 2020~2021년 경제전망 요약 .....	39

## **- 참고 순서 -**

<b>[참고 1] '20년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 및 시사점 .....</b>	<b>2</b>
<b>[참고 2] 최근 시중유동성 현황 점검 및 시사점 .....</b>	<b>4</b>
<b>[참고 3] 코로나19 이후의 주요국 정책대응 동향 및 시사점 .....</b>	<b>13</b>
<b>[참고 4] 최근 민간소비 부진의 특징 및 시사점 .....</b>	<b>18</b>
<b>[참고 5] 글로벌 반도체 업황 및 우리 경제 영향 .....</b>	<b>21</b>
<b>[참고 6] 설비투자 증가세 지속 가능성 점검 .....</b>	<b>23</b>
<b>[참고 7] 건설경기의 구조적 전환 여부 평가 및 시사점 .....</b>	<b>25</b>
<b>[참고 8]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회복경로 점검 및 시사점 .....</b>	<b>30</b>
<b>[참고 9] GDP 디플레이터 장기 추이 및 향후 전망 .....</b>	<b>32</b>
<b>[참고 10]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 분석 및 시사점 .....</b>	<b>35</b>

# I. 최근 경제동향 및 2020년 전망

## 1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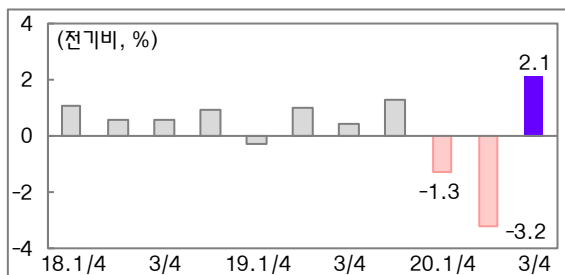
### ① [성장]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20년 $\Delta 1.1\%$ 성장 전망

- (실질성장률) '20년은 미증유의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극심한 대내외 경제활동 위축 영향 등으로  $\Delta 1.1\%$  성장 예상
  - 수출은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반복되면서 민간소비가 위축
  - 다만, 확장적 거시정책 등 정부의 과감한 정책대응을 통해 경기충격을 완충하면서 주요국 대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 [참고 1] '20년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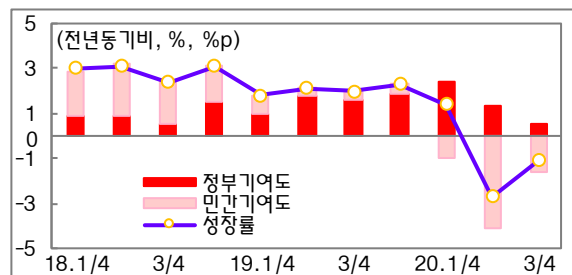
[참고 2] 최근 시중 유동성 현황 점검 및 시사점

GDP 성장률 추이



\* 출처 : 한국은행

민간·정부부문 성장기여도 추이



\* 출처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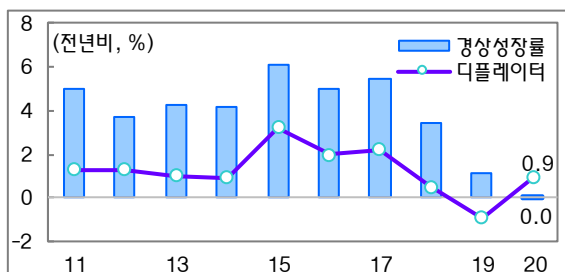
- (경상성장률) GDP 디플레이터 상승이 실질성장률 하락을 보완, 경상GDP는 연간  $\Delta 0.1\%$  성장 전망

- GDP 디플레이터는 국제유가 하락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 상승 전환 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1.0% 상승 예상

\* 국제유가(\$/b, 두바이유) : ('20.1/4)50.4<전년동기비  $\Delta 20.5$ > (2/4)30.7< $\Delta 54.5$ > (3/4)42.9< $\Delta 3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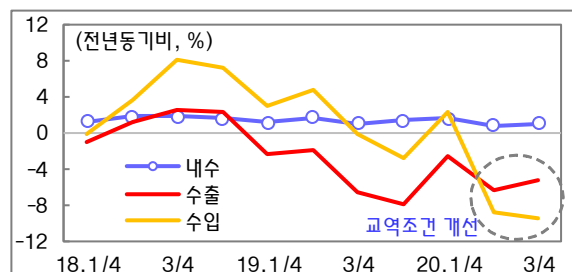
\* 반도체가격(D램8Gb, \$, <전년동기비(%)>) : ('20.1/4)2.9< $\Delta 44.8$ > (2/4)3.3< $\Delta 10.4$ > (3/4)3.1<6.5>

경상성장률 및 GDP 디플레이터



\* 출처 : 한국은행 ('20년은 1/4~3/4분기)

지출항목별 GDP 디플레이터



\* 출처 : 한국은행

## [참고 1] '20년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 및 시사점

- ① (정책대응) 금년은 확장적 본예산 편성(512.3조원)에 더하여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네 차례의 추경예산 편성(총 67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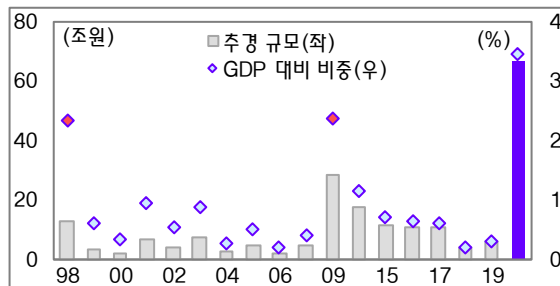
\* 총지출 규모(조원, 본예산 기준) : ('18)428.8<+7.1%> ('19)469.6<+9.5%> ('20)512.3<+9.1%>

- 금번 코로나 위기에 따른 추가 재정대응 규모는 과거 위기 및 주요국과 비교시 적지 않은 수준(GDP 대비 3.5%, G20 국가 중 13위)

- 확장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고, 추경 예산도 국회 통과 즉시 신속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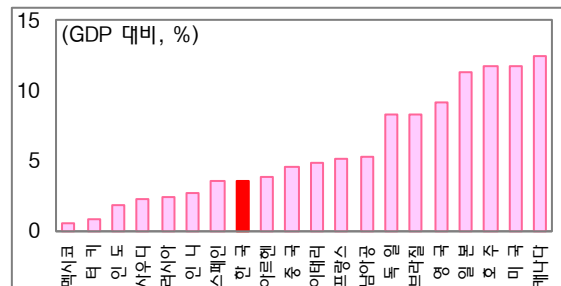
\*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상반기 집행률(%) : ('17) 59.0 ('18) 62.1 ('19) 65.4 ('20) 66.5

추경편성 규모 및 GDP 대비 비중



\* 출처 : 기획재정부

주요국 코로나 재정대응 규모(GDP 대비)



\* 출처 : IMF Fiscal monitor('20.9월 기준)

- ② (효과 분석) 재정지출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성장을 제고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분배 개선에 기여

### ※ 【참고】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파급경로

#### ①(직접 경로) 정부의 직접적 소비·투자 행위

→ 국민계정(GDP)상 정부부문 성장기여도로 반영

\* 정부소비 : 인건비성 지출(인건비·복리후생비 등) + 물건비성 지출(일반운영비·시험연구비 등)

\* 정부투자 : 건설비 + 자산취득비 + 연구개발출연금 등

#### ②(간접 경로) 민간(가계·기업)에 대한 이전지출 → 민간소비·투자 진작 + 분배 개선

→ 국민계정(GDP)상 민간부문 성장기여도로 반영

\* 긴급재난지원금,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 소비쿠폰,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회안전망 강화 등

- ① (직접 경로) 코로나 위기로 민간부문이 위축된 상황에서 직접 소비·투자 지출의 조기집행 등을 통해 정부부문이 성장 보완

\* 정부 성장기여도(전년동기비, %p) : ('15) 0.8 ('16) 0.9 ('17) 0.7 ('18) 0.8 ('19) 1.6

('20.1/4) 2.4 (2/4) 1.3 (3/4) 0.5

- 금년 연간으로도 정부부문이 예년 평균 이상의 성장기여 예상  
<'15~'18년 정부기여도 평균 0.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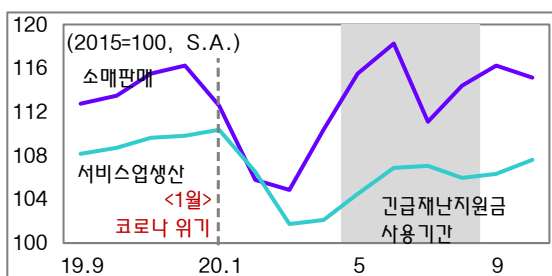
② (간접 경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취약계층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 패키지, 소비쿠폰 등을 통해 민간소비 위축 보완

- 특히, 대면서비스 소비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재화소비의 경우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내구재 중심으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 분배 측면에서도 취약계층 생계지원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통상 경제위기시 심화되었던 소득 격차 완충에 기여

\* 정부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시장소득 -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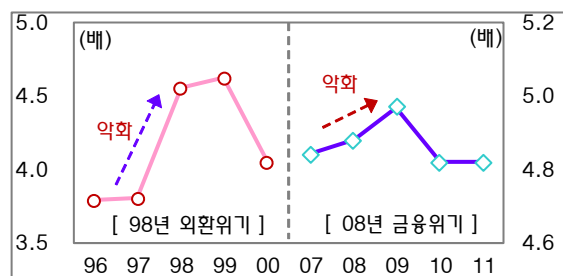
: ('19.1/4)2.84 (2/4)2.46 (3/4)2.54 (4/4)2.25 ('20.1/4)3.18 (2/4)4.19 (3/4)3.36

소매판매·서비스업생산 지수 추이



\* 출처 : 통계청

과거 경제위기시 분배지표(5분위배율)



\* 출처 : 통계청

③ (평가 및 시사점) '20년 확장 재정은 코로나 위기에 따른 경기 충격 완충 및 취약계층에 대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

\*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투입(GDP 대비 G20 평균 6.6%/한국 3.5%)으로 경제적 피해 최소화 <OECD 등은 우리나라가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

\* '20년 성장률 전망(% , OECD<'20.12>) : (美)△3.7 (日)△5.3 (獨)△5.5 (佛)△9.1 (英)△11.2

- 내년에도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 등을 감안, 확장 재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반등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적극 견인할 필요

\* (IMF, '20.10) 경기 회복세가 견고해 질 때까지 적극적인 재정정책 운용을 권고

- 일자리 예산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 재정 조기집행 추진
- 선도형 국가로의 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도 적극 뒷받침 <'21년 예산에 21.0조원 반영>

주요 분야별 예산 규모 및 증가율

	SOC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환경	보건·복지·고용	일자리
'21년(조원)	26.5	27.4	28.6	10.6	199.7	30.5
<증가율(%>	<14.1>	<13.1>	<20.8>	<17.8>	<10.6>	<19.8>

- 한편,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부처간 연계를 통한 협업예산 편성 등 재정혁신 노력 병행

## [참고 2] 최근 시중유동성 현황 점검 및 시사점

- ① (현황) 전례없는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확장적 거시정책, 과감한 금융지원 등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

\* 기준금리 인하 : 美(1.50~1.75→0.00~0.25%), 英(0.75→0.10%), 캐나다(1.75→0.25%) 등  
 \* 美 연준의 국채·MBS·회사채 등 자산매입프로그램, ECB 긴급 자산매입프로그램 도입 등

- IMF 기준('20.9월), 우리나라의 재정·유동성 지원 등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총지원 규모는 GDP 대비 13.8%로 G20 국가중 10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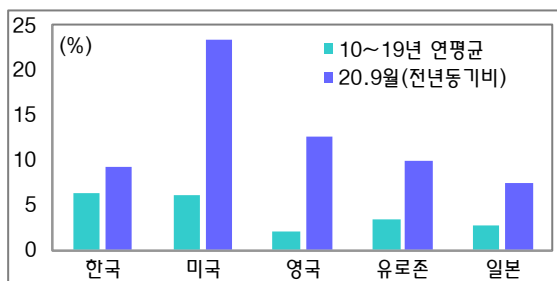
\* 주요 대응 : ①4차례 추경 편성(67조원), ②기준금리 인하(1.25→0.75<'20.3월>→0.5%<5월>), ③175조원+α 금융안정패키지 및 기간산업안정기금 마련 등

**G20 및 우리나라 정책지원 규모** (GDP 대비 %, IMF<'20.9월>)

	재정 지원(A)	유동성 지원(B)	총지원 규모(A+B)
G20 평균	6.6	6.9	13.5
우리나라 <순위>	3.5 <13위>	10.3 <8위>	13.8 <10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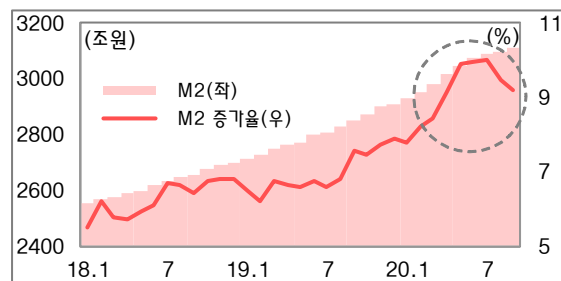
\* <註> 재정 지원 = 재정지출 + 세제감면  
 유동성 지원 = 대출 + 자산매입 + 공기업 지원

**주요국 광의통화 증가율**



\* 출처 : 블룸버그

**우리나라 시중유동성(M2)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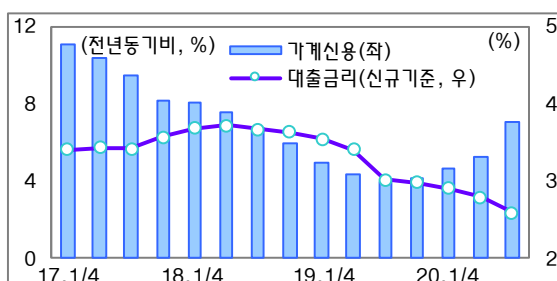
\* 출처 : 한국은행

- ② (유동성 지원의 효과) 극심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소득·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에 기여

- (가계)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자상환 부담이 완화되고,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능력 악화를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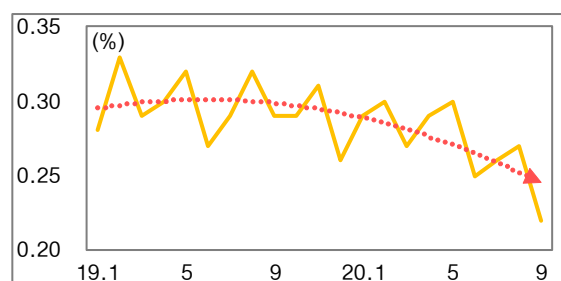
\*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조원) : ('16) 5.0 ('17) 6.9 ('18) 7.2 ('19) 8.0 ('20<sup>9</sup>) **8.6**  
 <'20년 목표상향(조원) : (근로자햇살론) 2.4→3.2 (햇살론youth) 0.1→0.2 (햇살론17) 0.8→1.0>

**가계신용 증가율 및 가계대출 금리 추이**



\* 출처 : 한국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 출처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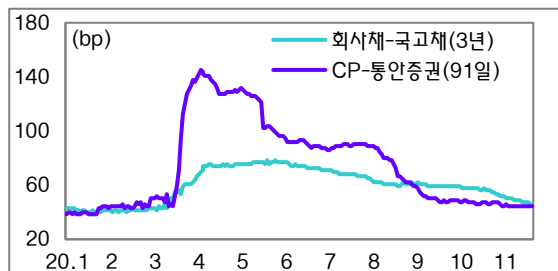
- (기업) 코로나 사태 초기 위축되었던 자금사정은 유동성 지원 등에 힘입어 대출·회사채·CP 등 전반적으로 빠르게 개선

\*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항공·해운 등 피해업종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프로그램(1·2차) 신설, 정책금융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 상환 유예 조치 등

- 기업자금사정 BSI가 위기 이전 수준을 상당폭 회복하였으며, 코로나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완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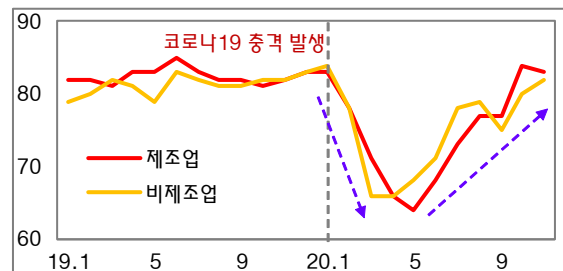
\* 연체율(% , '20.1월말→9월말) : (대기업) 0.38→0.28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0.54→0.40  
 <△0.10> <△0.14>

회사채(AA-) 및 CP 발행금리 스프레드



\* 출처 : 한국은행

기업자금사정 BSI(실적)



\* 출처 : 한국은행

- ③ (리스크 요인 점검) 유동성 지원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민간신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 건전성에 유의할 필요

\* '20.2/4분기 GDP 대비 민간신용 비중 206.9%

↳ 장기추세 대비 Gap 13.8%p [BIS: 10%p 초과시 신용위기 가능성 "경보"]

- 금융기관 건전성은 아직 양호한 상황이나, 한계기업 누증 및 지원 정상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 필요

\* '20.9월말 국내은행의 BIS 총자본비율은 16.02% → 규제비율(10.5%)을 5%p 이상 상회

\*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 기말) : ('18) 0.40 ('19) 0.36 ('20.3) 0.39 (6) 0.33 (9) 0.30

\* 한계기업수(개, <비중>, 한은 '20.9월) : ('19) 3,475<14.8%> → ('20<sup>e</sup>) 5,033<21.4%>

- ④ (시사점) 피해 극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 기조를 당분간 지속하되, 그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에 대한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

- ① 한시적 위기대응 조치는 향후 코로나 확산세 추이 및 경기·고용 흐름을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정상화 추진

-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벤처·신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금융·세제 등 정책지원 강화

- ②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금융기관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업권별(은행·증권·보험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

- ③ 위기 대응 과정에서 피해 극복을 넘어 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사업재편을 적극 뒷받침할 필요

## ② [민간소비] 서비스소비 위축 등으로 연간 4.4% 감소 예상

- 코로나 확산 추이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에 따라 위축과 회복이 반복되는 가운데, 전년동기대비 큰 폭의 감소세 지속

\* 일평균 확진자수(명) : ('20.2.15~3.31)214 (2/4)33 (7)48 (8)189 (9)124 (10)89 (11)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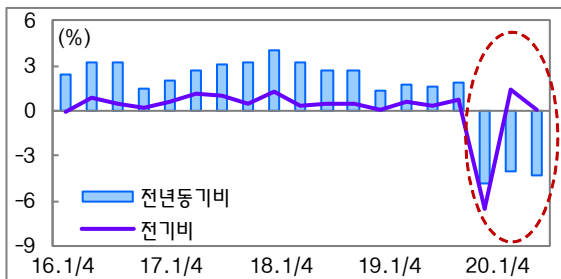
\* 민간소비(전년동기비, %) : ('18)3.2 ('19)1.7 ('20.1/4)△4.8 (2/4)△4.0 (3/4)△4.4

- 재화소비는 내구재를 중심으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대면서비스 및 해외소비가 크게 위축

\* 내구재소비(전년동기비, %) : ('19) 1.9 ('20.1/4) 1.1 (2/4) 19.7 (3/4)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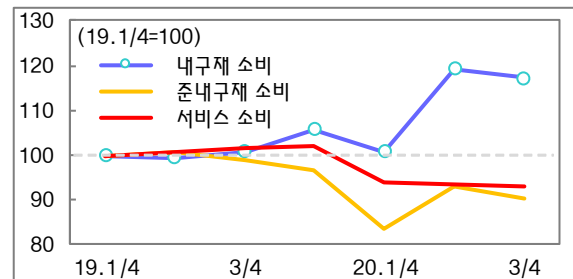
\* 해외소비(전년동기비, %) : ('19)△7.9 ('20.1/4)△27.5 (2/4)△72.4 (3/4)△68.2

민간소비 추이



\* 출처 : 한국은행

형태별 민간소비(S.A.)



\* 출처 : 한국은행

## ③ [설비투자] IT부문 투자 확대 등으로 연간 5.8% 증가 예상

-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 회복 등에 힘입어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큰 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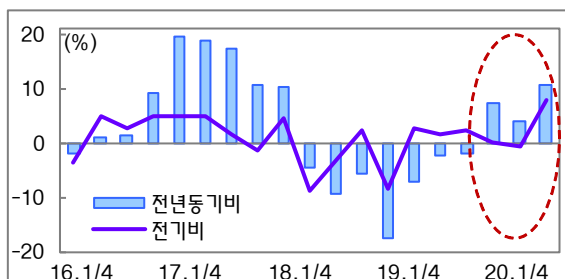
\* 설비투자(전년동기비, %) : ('18)△2.3 ('19)△7.5 ('20.1/4) 7.3 (2/4) 4.1 (3/4) 10.6

- 운송장비 투자는 항공기·선박 등을 중심으로 등락하는 가운데, 기계류 투자가 반도체 장비 위주로 증가 전환

\* 항공기·선박 수입(전년동기비, %) : ('19)5.7 ('20.1/4)△0.7 (2/4)△19.7 (3/4)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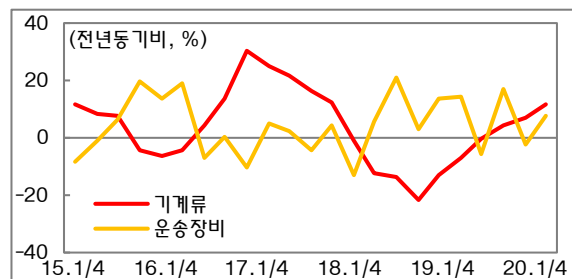
\*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전년동기비, %) : ('19)△44.1 ('20.1/4) 43.1 (2/4) 52.8 (3/4) 69.6

설비투자 추이



\* 출처 : 한국은행

부문별 설비투자



\* 출처 : 한국은행

#### ④ [건설투자] 건물건설 부진 등으로 연간 0.2% 감소 예상

- 작년말 이후 부진이 완화되던 건설투자는 금년 2/4분기 이후 코로나 사태 및 기상여건 악화 영향 등으로 감소

\* 건설투자(전년동기비, %) : ('19)△2.5 [(4/4) 2.6] ('20.1/4) 4.2 (2/4)△0.1 (3/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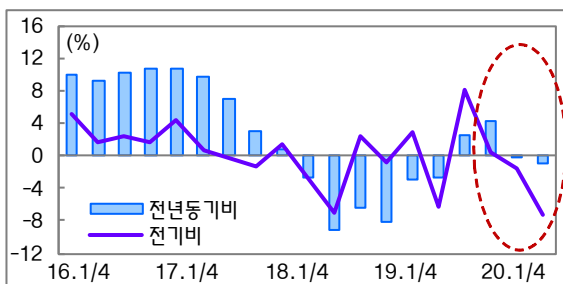
\* 3/4분기 강수량은 전년동기대비 +78.9%, 강수일수는 전년동기대비 +26.8%

- 건물건설은 주거용 건설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비주거용 건설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자영업 업황 악화 등으로 감소

- 토목건설은 SOC 예산 확대 등으로 증가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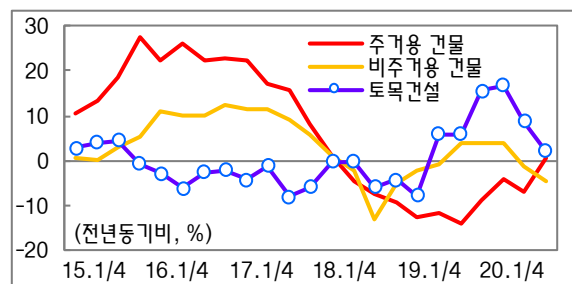
\* SOC 예산(조원, 본예산 기준) : ('17)22.1 ('18)19.0 ('19)19.8 ('20)23.2 <전년대비 +17.6%>

건설투자 추이



\* 출처 : 한국은행

형태별 건설투자



\* 출처 : 한국은행

#### ⑤ [지식재산생산물투자] R&D 투자 확대 등으로 3.7% 증가 예상

- R&D 투자는 소재·부품·장비부문 투자 확대 등으로 증가세 지속, 소프트웨어 투자도 비대면 관련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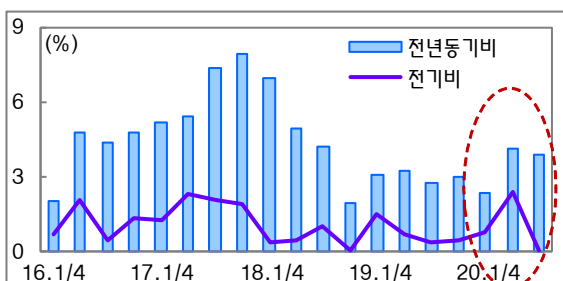
\* R&D 투자(전년동기비, %) : ('18) 6.1 ('19) 2.3 ('20.1/4) 1.0 (2/4) 4.3 (3/4) 5.9

\* 기타지재 투자(전년동기비, %) : ('18) 0.4 ('19) 4.9 ('20.1/4) 6.2 (2/4) 3.5 (3/4)△1.2

- 정부부문은 R&D 예산 확대 등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였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증가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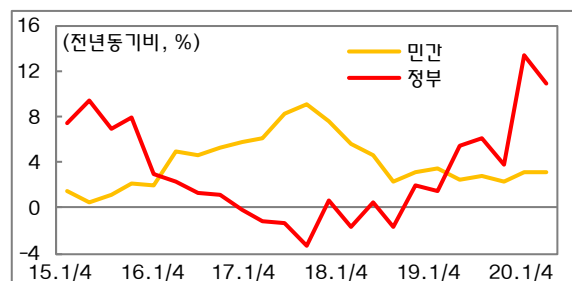
\* R&D 예산(조원, 본예산 기준) : ('17)19.5 ('18)19.7 ('19)20.5 ('20)24.2 <전년대비 +18.0%>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추이



\* 출처 : 한국은행

주체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출처 : 한국은행

## ⑥ [수출입] 연간 통관수출 6.2% 감소, 수입은 7.5% 감소 전망

- (수출) 코로나 사태 초기 글로벌 수요 위축 등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회복 흐름 지속

\* 수출(전년동기비, %) : ('20.1/4)△1.8 (2/4)△20.3 (3/4)△3.4 (10)△3.8 (11) 4.1  
<일평균(전년동기비, %)> <△5.4> <△18.5> <△4.8> <5.4> <6.4>

- 특히, 美·中·EU 등 주요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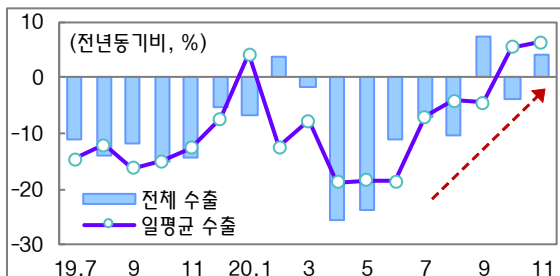
\* 지역별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비, %, '20.1/4 → 2/4 → 3/4 → 10월 → 11월)  
: (美) 5.5 → △17.5 → 10.1 → 3.3 → 6.8 (中) △8.5 → △4.5 → 2.2 → △5.8 → 1.2  
(EU) △3.2 → △19.9 → 0.2 → 9.4 → 24.6 (아세안) 3.7 → △25.4 → △9.9 → △6.3 → 6.4

- 품목별로는 석유제품·자동차·철강 등 수출이 부진한 반면, 비대면 수요 확대 등으로 반도체 및 신산업 분야 수출이 증가

\* '20.1~11월 품목별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비, %) : (석유제품)△41.2 (철강)△15.0  
(자동차)△13.9 (반도체)3.5 (전기차)43.4 (바이오헬스)51.6 (컴퓨터)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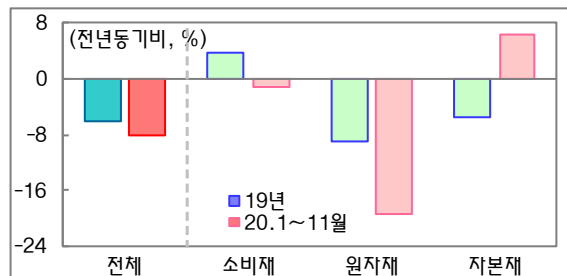
- (수입)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유가 하락, 소비 부진 등으로 원자재·소비재 수입 감소

최근 수출 추이



\* 출처 : 무역협회

성질별 수입(통관)



\* 출처 : 관세청

- (경상수지) 연간 680억불 흑자 예상 ('19년보다 80억불 증가)

- (상품수지) 수출과 함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흑자 규모는 '19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

\* 상품수지(억불) : ('18) 1,101 ('19) 769 (20.1~10월) 601 ['19.1~10월 644억불]

- (서비스수지) 해외관광 급감, 금년 하반기 운임 상승 등으로 여행·운송수지 중심으로 적자폭 축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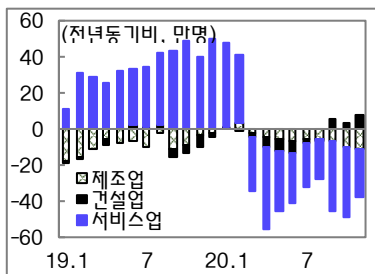
\* 서비스수지(억불) : ('18)△293 ('19)△230 (20.1~10월)△130 ['19.1~10월 △186억불]

\* 해외순유출(해외출국자 - 방한관광객, 만명) : ('18)1,335 ('19)1,121 ('20.1~10)133

## ① [취업자수] 코로나19 충격으로 22만명 감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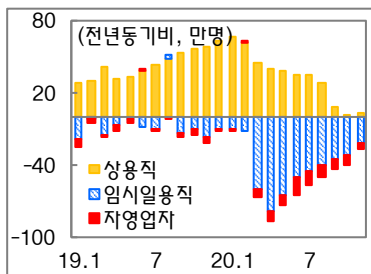
-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
  - \* 취업자증감(전년동기비, 만명): ('20.1/4)28.8 (2/4)△40.7 (3/4)△31.4 (10)△42.1 (11)△27.3
  -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면서비스업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제조업 취업자도 감소폭 확대
-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크게 감소하고 최근 들어 상용직 근로자 증가폭도 둔화, 자영업자는 감소세 지속
- 연령별로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청년·30대 등은 신규채용 위축 등으로 취업자수 감소

산업별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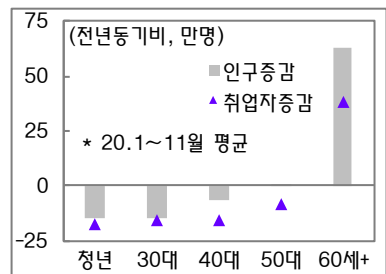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



\* 출처 : 통계청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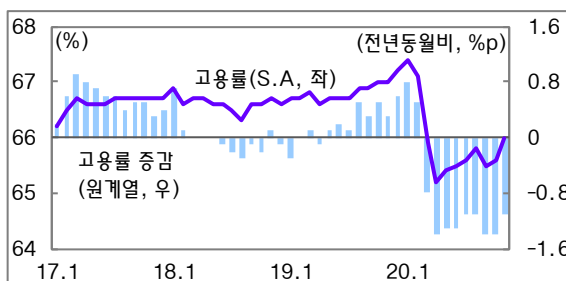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 ② [고용률·실업률] 고용률 하락, 실업률은 소폭 상승 예상

- 취업자 감소로 고용률이 전년대비 하락하고, 실업률의 경우 실업자 증가와 함께 구직활동이 위축되면서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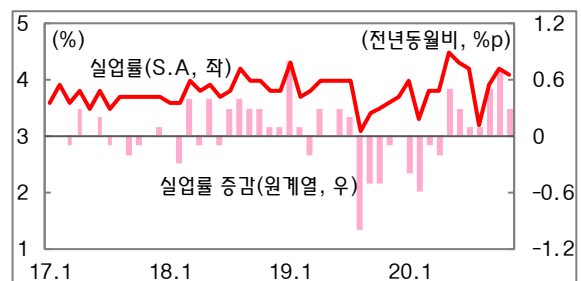
\* '19→'20년 고용지표 변화(% , 1~11월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실업률 15세 이상, 고용률 15~64세)  
: (경활동)63.4→62.6<△0.7%p> (고용률)66.8→65.9<△0.9%p> (실업률)3.8→3.9<+0.1%p>

고용률(15~64세) 추이



\* 출처 : 통계청

실업률 추이



\* 출처 : 통계청

### ① [물가] 수요·공급·정책적 요인 영향으로 0.5% 상승 전망

-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진,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낮은 물가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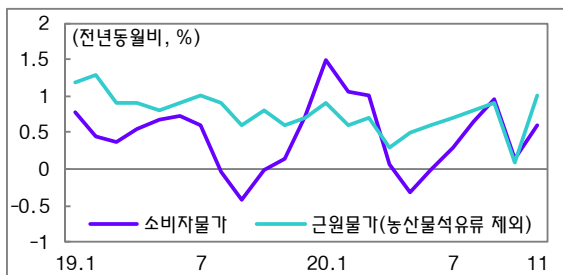
\* CPI(전년동기비, %) : ('19) 0.4 ('20.1/4) 1.2 (2/4)△0.1 (3/4) 0.6 (10) 0.1 (11) 0.6

\* 국제유가(\$/b, CERA<'20.11월>, 두바이유) : ('19) 64 ('20) 42

- 고교 1학년 무상교육·급식 조기 확대\*, 자동차 개소세 인하, 통신비 지원 등 정책효과도 물가 상승폭을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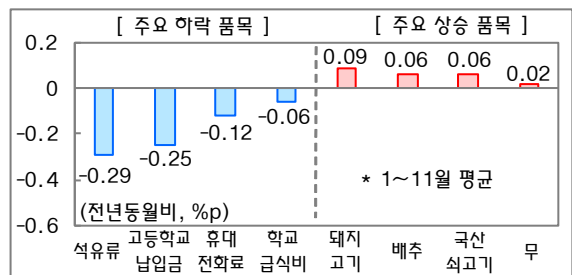
\* 당초 '21년 시행 예정 → 대구·경북은 '20년 1학기, 서울·부산 등 11개 시도 2학기 지원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 출처 : 통계청

'20년 주요 상승·하락 품목별 기여도



\* 출처 : 통계청

### ② [주택시장] 시장·지역별로 상이하나, 가격 불안요인이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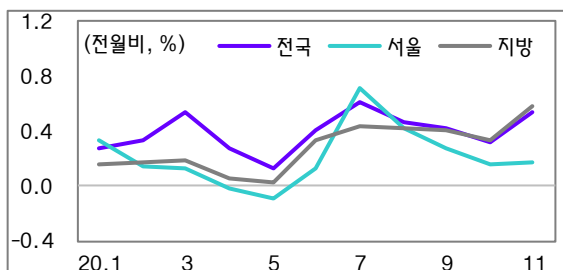
- 주택 매매시장은 서울의 경우 7.10대책 이후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지방의 경우 일부 광역시 중심으로 가격 상승

\* 주택가격 상승률(%) : [서울] ('20.6)0.13 (7)0.71 (8)0.42 (9)0.27 (10)0.16 (11)0.17  
[지방] ('20.6)0.33 (7)0.44 (8)0.43 (9)0.41 (10)0.34 (11)0.58

- 전세가격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세대분할 증가, 차입비용 부담 완화 등으로 상승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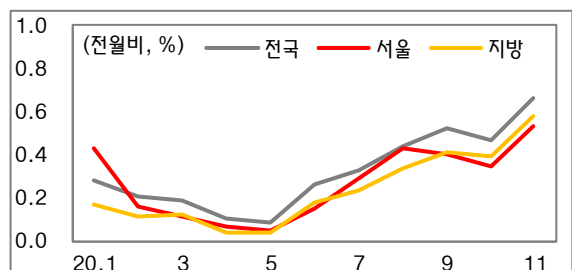
\* 전세가격 상승률(%) : [서울] ('20.6)0.15 (7)0.29 (8)0.43 (9)0.41 (10)0.35 (11)0.53  
[지방] ('20.6)0.18 (7)0.24 (8)0.34 (9)0.41 (10)0.39 (11)0.58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 출처 : 한국감정원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



\* 출처 : 한국감정원

## Ⅱ. 2021년 경제전망

### 1. 대외여건 점검

#### 1 세계경제

##### ① [성장] 개선 흐름이 예상되나, 국가별 회복속도는 차별화 전망

- (미국) 바이든 新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 국회에서 9천억불 규모의 긴급부양책 논의중, 바이든은 취임 이후 추가조치 선언(12.1일)
  - \* 美 개인소비지출(전월비, %) : ('20.4)△12.7 (5)8.7 (6)6.5 (7)1.5 (8)1.2 (9)1.2 (10)0.5
- (중국) 글로벌 교역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 적극적 내수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코로나 위기 이전의 성장경로 회복 예상
  - \* 中 정부는 내수 중심의 자립경제 구축(내순환)을 기반으로 국제개방을 확대(외순환)하는 「쌍순환 전략」 추진 발표 <'20.10월 5중대회, '21년중 구체적 실행방안 발표 예정>
- (유로존) 경제회복기금 집행 등 확장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점차 개선되겠으나, 브렉시트 영향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제회복기금(7,500억유로), '21~'27예산(1조740억유로) 타결(12.10일)
- (일본) 수출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지원 등으로 소비 부진도 완화되겠으나, 도쿄올림픽 개최 관련 불확실성 등이 상존
  - \* 日 수출 증가율(전기비, %) : ('20.2/4)△14.7 (7) 6.1 (8) 4.9 (9) 3.5 (10) 2.6
  - \* 日 정부는 코로나 확산방지·경기부양을 위한 3차 종합대책(73.6조엔 규모) 마련(12.8일)
- (신흥국) 수출 개선,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등으로 성장세 회복이 예상되나, 채무누적 등이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

##### ※ [참고 3] 코로나19 이후의 주요국 정책대응 동향 및 시사점

#####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실 적			전 망			
	'20년			'20년 연간		'21년 연간	
	1/4	2/4	3/4	IMF	OECD	IMF	OECD
세계경제 성장률	-	-	-	△4.4	△4.2	5.2	4.2
미 국(전기비연율)	△5.0	△31.4	33.1	△4.3	△3.7	3.1	3.2
중 국(전년동기비)	△6.8	3.2	4.9	1.9	1.8	8.2	8.0
유 로(전기비)	△3.7	△11.7	12.5	△8.3	△7.5	5.2	3.6
일 본(전기비)	△0.5	△8.3	5.3	△5.3	△5.3	2.3	2.3
인 도(전년동기비)	3.1	△23.9	△7.5	△10.3	△9.9	8.8	7.9
브라질(전년동기비)	△0.3	△10.9	△3.9	△5.8	△6.0	2.8	2.6

## ② [교역·물가] 세계교역 개선, 물가상승세는 소폭 확대 전망

- 세계교역은 각국 경제활동 정상화, 제조업 업황 회복 등으로 개선되겠으나, 해외여행 등 서비스교역의 경우 회복 지연 예상

\* 세계 상품교역 증가율(% , WTO<'20.10>) : ('18) 2.9 ('19)△0.1 ('20<sup>e</sup>)△9.2 ('21<sup>e</sup>)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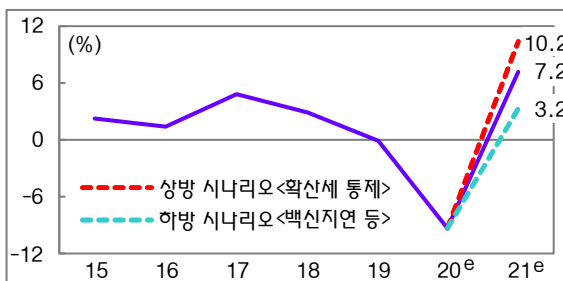
\* 글로벌 항공승객수(억명, IATA<'20.11>) : ('18) 43.8 ('19) 45.4 ('20<sup>e</sup>) 18.0 ('21<sup>e</sup>) 28.1

- 세계물가는 글로벌 수요 회복,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세계물가 상승률(% , IMF<'20.10>) : ('18) 3.6 ('19) 3.5 ('20<sup>e</sup>) 3.2 ('21<sup>e</sup>)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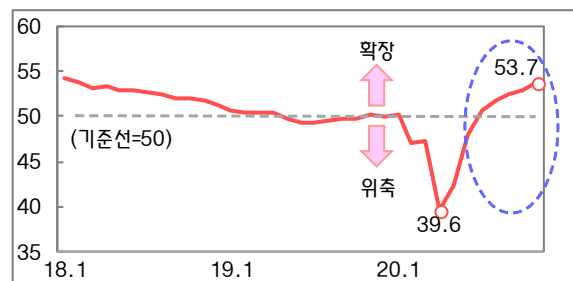
\* 원자재가격 상승률(% , IMF<'20.10>) : ('18) 5.4 ('19) 1.5 ('20<sup>e</sup>) △0.4 ('21<sup>e</sup>) 2.7

세계교역량 증가율 추이



\* 출처 : WTO

글로벌 제조업PMI 추이



\* 출처 : JP Morgan

## ③ [리스크 요인]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국제무역질서 재편 등

- 내년 세계경제의 개선 전망에도 불구하고 회복 속도의 경우 코로나 상황 및 백신·치료제의 개발·보급 시기 등이 관건

- 금년말~내년초 美·유럽 등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시작이 예상되나, 보급 지연시 경제활동 정상화를 제약할 가능성

\* 영국·캐나다·미국 등은 백신 사용을 승인하였으며, 12월중 백신 접종 시작

\* 화이자·모더나의 백신은 전례없는 신기술로 제조·공급에 있어 불확실성 高(NYT, '20.11)

-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부양책 확대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이 중요

- 특히 미·중 갈등, 상계관세, 브렉시트 등 주요 통상현안 동향에 유의하면서 RCEP 조기발효 등 메가 FTA에 적극 대응 필요

- 위기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주요국 채무 증가, 자원신흥국 재정 악화 등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 가능성

### [참고 3] 코로나19 이후의 주요국 정책대응 동향 및 시사점

① (미국) 바이든 新정부는 경기회복 등을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 강화, 성장잠재력 제고 위한 환경·산업정책 개편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

○ 추가 경기부양책 마련 및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지속 등을 통해 당면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적극 뒷받침

- \* 바이든 당선자,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경기부양책 外 추가 부양책 마련·추진 예정
- \* 파월 연준의장, 팬데믹 위기에서 확실히 벗어날 때까지 저금리, 가능한 수단 지속 계획

▪ 중장기적으로 복지·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확대 지속 예상

○ 친환경 에너지 육성 및 저탄소 경제 전환 가속화 등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R&D 등 제조업 혁신도 적극 지원

바이든 당선인의 분야별 공약 주요 내용

분 야	주요 내용
기후변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인프라(전기차 충전소, 친환경에너지 발전 등)에 4년간 총 2조불 투자 → 정부투자를 마중물로 향후 10년간 민간투자 3조불 유도</li> <li>▶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및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net-zero) 달성</li> </ul>
산업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활성화 및 혁신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500만개 창출</li> <li>- 정부조달 확대(4천불 규모),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강화, 5G·AI·바이오 등 혁신기술 및 R&amp;D 투자 확대 등</li> </ul>
복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확대, 최저임금 인상(\$7.5→\$15) 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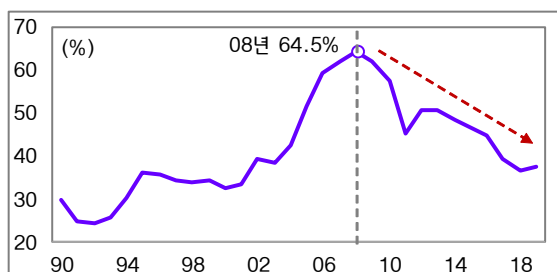
\* 출처 : 조 바이든 대선공약집(joebiden.com)

② (중국) 쌍순환 성장 추진 및 기술자립·녹색성장 촉진 등을 중심으로 한 제14차 5개년('21~'25년) 경제사회발전계획 추진방향 마련

\* '20.10월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21년중 구체적 실행방안 발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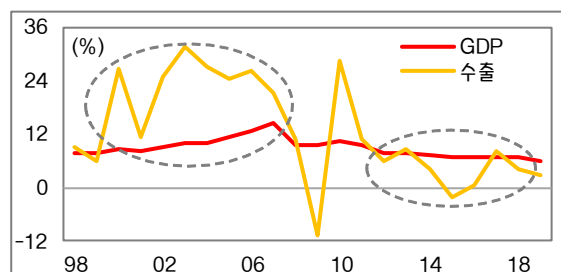
○ 내수 중심의 자립경제 구축(내순환)을 기반으로 대외적으로 수출·개방 확대(외순환), 양측간 유기적으로 연계된 성장 추진

中 대외의존도 추이(GDP 대비 수출수입 비중)



\* 출처 : World Bank

中 GDP 성장률 및 수출 증가율



\* 출처 : IMF WEO

- 한편, ①핵심기술·부품 등의 기술자립 제고, ②녹색 생산 및 탄소 배출 감소 등 중요 과제는 장기적 시계(~'35년)에서 지속 추진

\* 5G·반도체 등 핵심 제조업 기술자립을 위해 대규모 투자 확대 예상 (무역협회)  
 \* '60년 탄소중립 달성 선언(9.22일 UN총회) 이후 대대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 발표 (9.27)

③ (EU) 적극적 거시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그린 및 디지털 경제 가속화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 병행

- 경제회복기금(7,500억 유로) 등을 통해 코로나에 따른 회원국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 ECB도 추가 부양책 추진 예정

\* ECB<'20.12월>, 긴급매입 프로그램 5천억유로 확대, 채권매입 연장('21.6→'22.3월까지) 등 발표

- '50년까지 탄소제로 목표로 새로운 성장전략인 「유럽 그린딜」 추진  
 → 향후 10년간 최소 1조유로 규모의 투자 계획 발표('20.1월)

- 아울러, 「유럽 디지털 전략('20.2월)」 등을 통해 데이터·AI 산업 육성을 육성하는 한편, 디지털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추진

④ (일본) 스가 정부는 확장 재정 기초를 견지하면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및 2050 탄소중립 등 추진

- 코로나 대응 및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3차례 종합대책 발표, 당분간 경기회복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확장 재정 지속 전망

\* 1~3차 대책 총 지원규모는 308조엔(GDP의 55%) / 재정지출 규모는 약 161조엔(29%)  
 ↳ 3차 대책(12.8일) : 코로나19 대비 백신확보, 포스트 코로나 대비 녹색·디지털 분야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중심으로 74조엔<GDP의 13%> 지원

-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출·세입개혁 병행 시사

- 스가 총리는 취임 후 '디지털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첫 소신표명 연설(10.26일)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 발표

\* 차세대 디지털 행정시스템 구축, IoT, AI 등 신산업 육성 등 IT 국제경쟁력 강화 등

⑤ (시사점)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조속한 위기극복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 구조적 전환에 대한 선제 대비에 주력

- 특히, 적극적 거시정책을 지속하면서 디지털화 및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가속화 등에 대응한 신성장 동력 발굴 노력 강화

⇒ 확장적 거시정책 등을 통한 신속한 경제회복 및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하는 우리 정책방향과 유사

## 2

## 국제원자재 가격

## ① [국제유가] '21년 평균 46\$/B 예상 (두바이유 기준)

- 국제유가는 글로벌 수요 회복과 OPEC+의 점진적 감산규모 축소 등을 감안시 완만한 속도로 상승 전망

\* 감산규모 축소 : [당초] ('20.8~12월) 770 → ('21.1~'22.4월) 580  
(만배럴/일) [변경] ('20.8~12월) 770 → ('21.1월) 720/ 2월부터 매월 50이내씩 축소

\* 세계 석유 초과수요 전망(만배럴/일, EIA, '20.12월) : ('20<sup>e</sup>) △152 → ('21<sup>e</sup>) 41

- 다만, 코로나 상황 관련 불확실성, 이란·베네수엘라 원유공급 확대 가능성 등이 상승폭 제약요인으로 작용

\* 美 바이든 정부가 이란·베네수엘라에 대한 수출 제재를 완화할 경우, 원유생산이 정상화되면서 글로벌 원유공급이 확대될 가능성

주요 기관들의 '21년 국제유가 전망 (\$/B, 기간평균)

기관 (전망시점)	유종	'18	19	'20 <sup>e</sup>		'21 <sup>e</sup>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CERA('20.11월)	Dubai	70	64	42	42	46	43	44	48	51
CERA('20.11월)				41	41	47	43	44	48	52
EIA('20.12월)	Brent	72	64	41	43	49	47	48	49	50
OXFORD('20.12월)				42	44	49	46	48	50	53

## ② [국제곡물·비철금속] 가격 상승세 전망

- ① (국제곡물) 중국의 견조한 곡물 수요,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공급 차질 가능성 등으로 가격 상승 전망

\* 라니냐(동태평양 적도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0.5도 이상 낮은 상태) 발생으로 인해 북미지역에는 한파, 남미지역에는 가뭄 피해 야기 → 곡물 수급에 영향 우려

- ② (비철금속)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 및 주요국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큰 폭의 상승세 예상

\* (美) 전력 인프라 구축사업 재개 / (中) 특고압 송전설비 투자 등 본격화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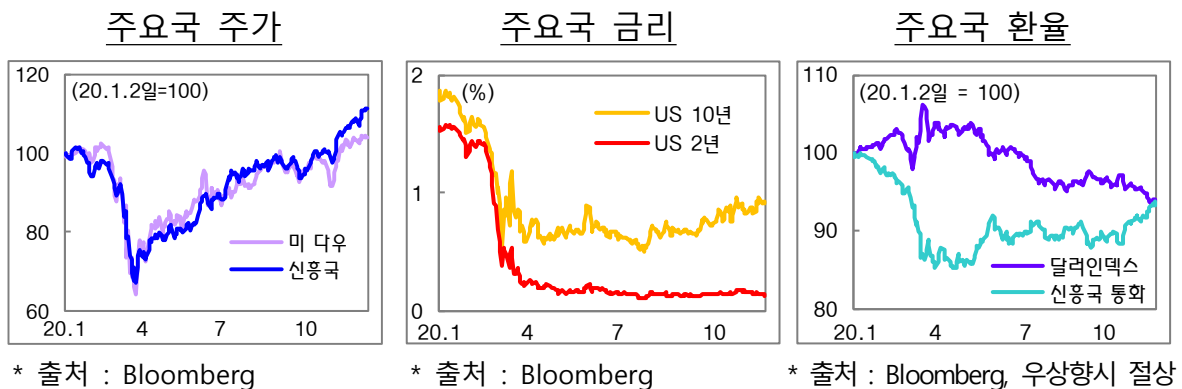
국제곡물·비철금속 가격 상승률 전망 (%)

(전년비, %)	옥수수	밀	대두	알루미늄	구리	니켈	아연
'19년	3.4	△12.3	△4.5	△14.9	△8.0	6.1	△12.7
'20년 <sup>e</sup>	△8.9	5.2	△0.4	△6.7	0.2	△3.5	△12.4
'21년 <sup>e</sup>	8.0	2.2	3.4	9.7	9.7	10.1	12.3

\* 출처 : IMF('20.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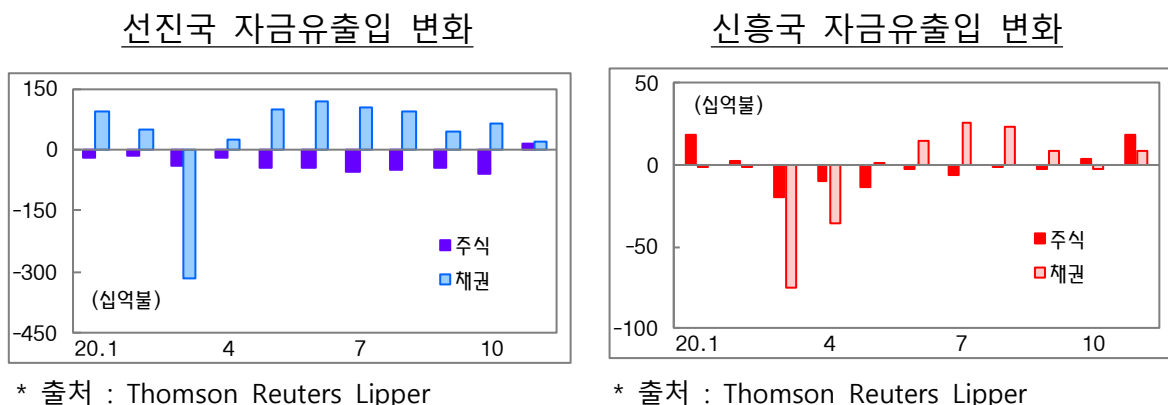
## 1 [시장지표] 코로나 전개 추이 등에 따라 변동성 지속 전망

- (주가) 글로벌 경기·교역 회복 등은 상방요인이나, 코로나 전개 추이 및 백신·치료제 보급 시기 등 불확실성 상존
  - \* '19년말 대비 상승률('20.12.10, %) : (美)+5.1 (유럽)△6.0 (日)+13.1 (中)+10.6 (韓)+25.0
- (금리)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이어지면서 저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지출 확대 등 상승요인도 혼재
- (환율) 코로나 상황 및 주요국 경기부양책,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제무역질서 재편 상황 등에 따라 변동성 지속 예상



## 2 [자금유출입] 완화적 금융여건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요인 상존

- 글로벌 유동성 공급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추이에 따라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가능성



## 2. 국내경제 전망

### ※ 코로나 상황의 전제

- ▶ 금년말~내년초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시작, 하반기중 백신 상용화 예상
- ▶ 상반기는 산발적 확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점진적인 경제활동 정상화 진행, 하반기중 코로나 진정 및 경제활동 본격 회복을 전제

### 1

### 경제성장

#### ① [민간소비] 연간 3.1% 증가 예상

##### ① (소득여건) 고용 및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개선 예상

- 이전소득의 경우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금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기저가 증가폭을 제약

\* 보건·복지·고용 예산(조원) : ('20) 180.5 → ('21) 199.7 [전년대비 +19.2조원]

##### ② (자산여건) 주가 상승 추세, 금년 소비이연 등에 따른 저축 증가, 대출금리 하락 등이 소비여력 개선을 뒷받침

\* 코스피(pt) : ('20.1말)2,119 (3.19)1,458 (9말)2,328 (10말)2,267 (11말)2,591 (12.11)2,770

\* 가계 대출금리(신규취급액, %) : ('20.1)2.95 (3)2.88 (5)2.81 (7)2.62 (9)2.59 (10)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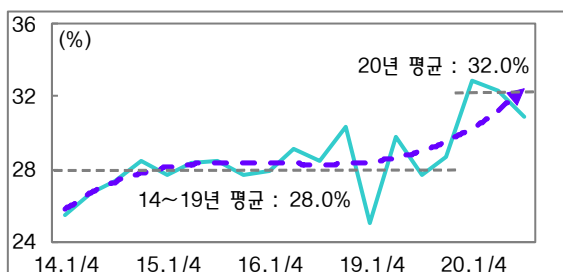
##### ③ (기타) 정부의 소비지원 3종 인센티브 등 정책효과, 소비자 심리 개선 등도 긍정적 요인

\* 소비지원 대책 :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

\* 소비활력 제고 관련 예산 규모(조원) : ('20) 0.7 → ('2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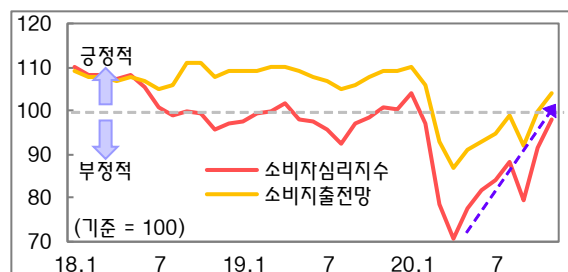
- 다만, 코로나 상황 관련 불확실성은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 회복세 제약요인으로 작용

저축률(가계동향조사 흑자율) 추이



\* 출처 : 통계청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 출처 : 한국은행

⇒ ('20년 전망) 소득·자산여건 개선, 심리 회복, 적극적 정책지원 효과 등에 힘입어 금년 부진에서 벗어나 3.1% 증가 전망

※ [참고 4] 최근 민간소비 부진의 특징 및 시사점

## [참고 4] 최근 민간소비 부진의 특징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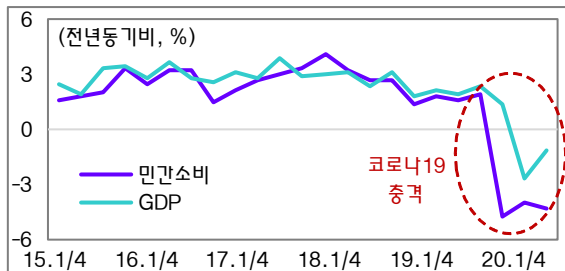
- ① (동향) '20년 민간소비는 초유의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급격히 위축되면서 역성장의 주요인으로 작용

\* '20.1/4~3/4분기 평균 성장기여도(%p, 전년동기비)

: [(GDP)△0.9%] (민간소비)△2.1 (정부소비)1.0 (총고정자본)0.9 (순수출)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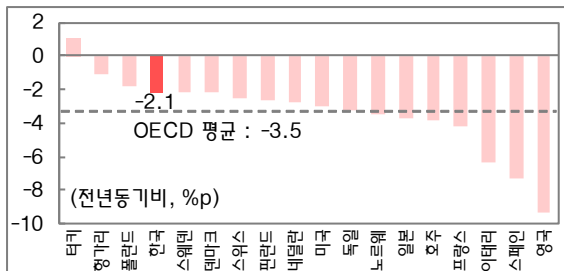
- 이는 전세계 공통 현상이며, 우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충격이 작은 수준

민간소비 증가율 및 GDP 성장률



\* 출처 : 한국은행

주요국 민간소비 성장기여도('20.1/4~3/4)



\* 출처 : OECD

- ② (소비 부진의 특징)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대면서비스 소비 및 해외소비를 중심으로 크게 위축

- ① (변동성 확대) 민간소비는 '11년 이후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며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최근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

	'11	'12	'13	'14	'15	'16	'17	'18	'19
* 경제성장률(%)	3.7	2.4	3.2	3.2	2.8	2.9	3.2	2.9	2.0
<민간소비 기여도(%p)>	<1.5>	<0.8>	<0.9>	<1.0>	<1.1>	<1.3>	<1.3>	<1.5>	<0.8>

- 사태 초기 불안심리 등으로 급속히 감소하였던 민간소비는 확산세 진정 및 재확산에 따른 회복·위축이 반복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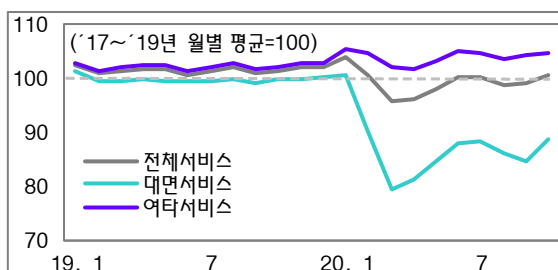
\* 민간소비 증가율(전기비, %) : ('19.3/4) 0.4 (4/4) 0.7 ('20.1/4)△6.5 (2/4) 1.5 (3/4) 0.0

\* 카드승인액(전년동기비, %) : (11.1주) 7.4 (2주) 4.7 (3주) 3.4 (4주) △2.2 (12.1주) 4.0

- ② (대면서비스 소비 위축)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소비 부진의 주요인으로 작용(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교육, 운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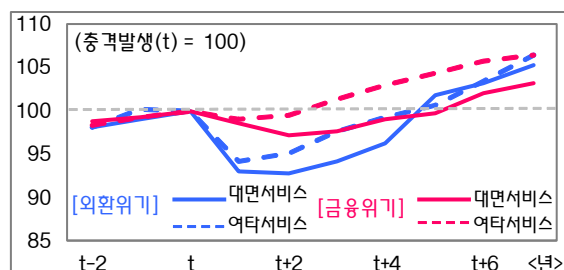
- 특히, 대면서비스 소비는 재량적 지출 특성으로 인해 경제위기시 여타 서비스 소비에 비해 크게 위축되고 회복 속도도 완만

대면서비스 및 대면서비스 외 소비 추이



\* 출처 : 통계청, 자체 추정

위기시 대면서비스 소비 변동 비교



\* 출처 : 한국은행, 자체 추정

※ **재화소비**의 경우 대면서비스 소비와 달리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  
→ 정책효과, 온라인 소비 증가 등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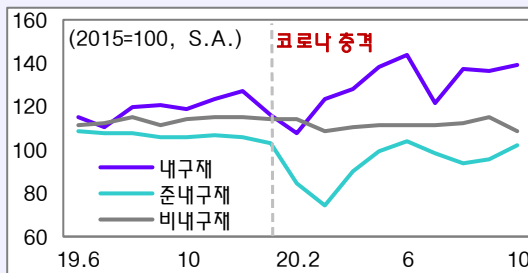
①(정책효과) 승용차 개소세 인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등에 힘입어 내구재 소비가 크게 증가

- \* 승용차 개소세 인하('20.3~6월  $\Delta 70\%$  / 7~12월  $\Delta 30\%$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20.5~8월, 14.2조원), 고효율가전 구매지원('20.3~9월 0.3조원) 등
- \* 주요 내구재 카드매출액(1~11월, 전년동기비, %) : (자동차) 29.0 (가구) 16.7 (가전) 5.2

②(온라인 소비) 코로나 발생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소비 부진 완충  
→ 주요국 대비 소비 충격 완화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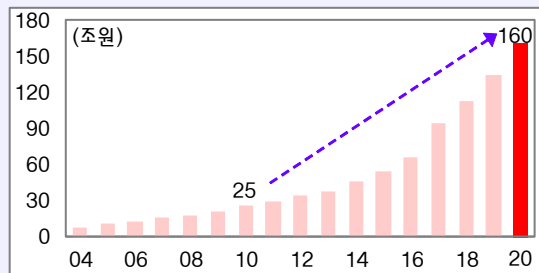
- \* 소매판매 중 온라인 소비 비중(%,'19년) : (韓)21.4 (中)20.7 (英)18.4 (美)11.0 (日)6.8

재화 형태별 소매판매 추이



\* 출처 : 통계청

온라인 소비 규모 추이



\* 출처 : 통계청 ('20년은 자체추정)

③ (해외소비 급감) 민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19년 3.9%)은 크지 않으나, 해외여행 급감 등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소비를 제약

- \* 해외 여행객수(전년동기비, %) : ('19) 0.1 ('20.1/4)  $\Delta 52.9$  (2/4)  $\Delta 98.4$  (3/4)  $\Delta 96.7$

	'17	'18	'19	'20.1/4	2/4	3/4
* 민간소비(전년동기비, %)	2.8	3.2	1.7	$\Delta 4.8$	$\Delta 4.0$	$\Delta 4.4$
<거주자 해외소비 기여도(%p)>	<0.5>	<0.4>	< $\Delta 0.3$ >	< $\Delta 1.1$ >	< $\Delta 2.9$ >	< $\Delta 2.7$ >

※ 해외소비는 GDP상 민간소비인 동시에 서비스수입(차감항목)에 포함 → GDP 규모에 영향 無

■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해외소비 회복은 사태 진정 및 심리 개선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

- \* 글로벌 항공수요는 '24년에야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전망(국제항공운송협회, '20.7월)

③ (시사점) 내년 민간소비는 기저영향 등으로 반등하겠으나, 대면 서비스 및 해외소비를 중심으로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

○ 내수 경기의 신속한 재생 및 반등을 위해 방역 친화적인 소비·관광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소비 인센티브 확대 필요

- \* 소비쿠폰 온라인 사용 확대,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 활성화, 소득공제 확대 등

○ 아울러, 소비 활력이 살아날 때까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맞춤형 생존지원 노력을 지속

- \*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 유도, 비대면 등 경쟁력 제고 지원, 재기지원 강화 등

## ② [설비투자] 연간 4.8%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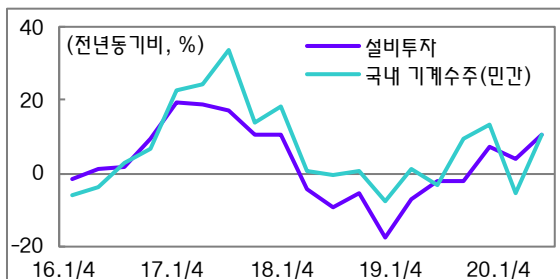
- ❶ (투자여건) 반도체 등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큰 폭의 증가세 지속 예상

\* 반도체 매출 증가율(% , WSTS<'20.12월>) : ('19)△12.1 ('20<sup>e</sup>)+5.1 ('21<sup>e</sup>)+8.4

### ※ [참고 5] 글로벌 반도체 업황 및 우리 경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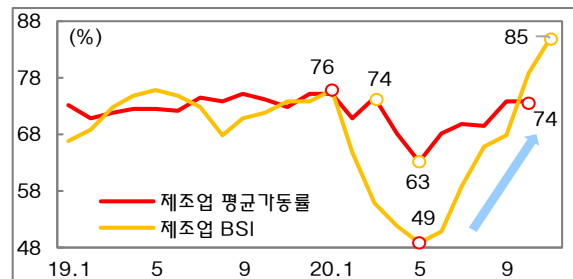
- 최근 기업심리 회복과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수주, 제조업 가동률 개선 흐름 등도 투자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다만, 코로나 전개 추이 및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 관련 불확실성 등이 투자 심리 개선을 제약할 가능성

국내 민간 기계수주 및 설비투자



\* 출처 : 한국은행, 통계청

BSI 및 제조업 평균 가동률



\* 출처 : 한국은행, 통계청

- ❷ (업종별 여건) 주력 산업인 IT 부문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비IT 부문 투자도 확대 예상

- IT 부문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로의 전환 수요 등으로 견조한 투자 증가세 지속

\* 메모리반도체 매출 증가율(% , WSTS<'20.12월>) : ('19)△32.6 ('20<sup>e</sup>)+12.2 ('21<sup>e</sup>)+13.3

- 자동차는 수요 확대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자율주행, 전기차 등 미래형 기술 중심으로 투자 확대 예상

\* 현대차는 '25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판매를 목표로 전기차 전용라인 구축중

- 철강·석유화학 등도 자동차·가전 등 전방산업의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투자 개선 흐름 전망

\* 코로나 사태에 따른 비대면 활성화 등으로 가전·인테리어 제품 등의 수요 확대

- ⇒ ('21년 전망) 반도체 등 IT 부문의 견조한 투자 증가세와 함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정책효과\* 등으로 4.8% 증가 전망

\* 가속상각 한시 허용(50~75%), 5G 투자 등 신성장기술 세제지원 강화 등

### ※ [참고 6] 설비투자 증가세 지속 가능성 점검

## [참고 5] 글로벌 반도체 업황 및 우리 경제 영향

① (글로벌 반도체 업황) 공급·수요의 쌍방 과점 구조하에서 글로벌 경기 여건, 공급·수요업체의 전략적 행동 등에 따라 주기적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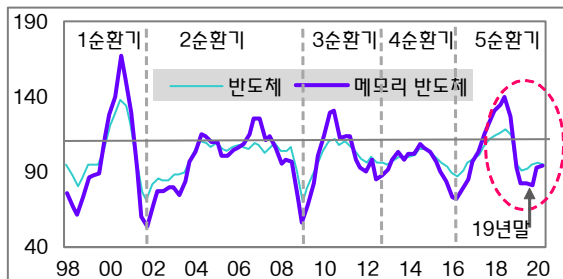
○ '17~'18년 초호황기 이후 투자 급증에 따른 공급 확대와 수요 감소가 중첩되며 '18년말부터 가격이 큰 폭 하락 → 조정국면

\* 반도체 산업은 설비의 가동 축소·생산라인 조정에 상당한 비용 소요 (공급의 비탄력성)  
<「수요 증가 → 투자 확대·공급 증가 → 수요 둔화 → 공급조정 지연 및 단가 하락」 반복>

○ '19년말 가격 상승 전환으로 금년중 업황 회복이 기대되었으나, 코로나19 충격, 스마트폰 판매 부진 등으로 회복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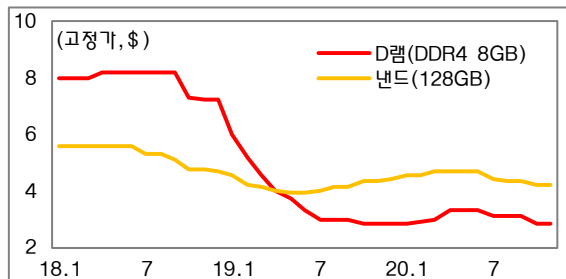
\* 스마트폰 출하 증가율(% 카운터포인트리서치, '20.9월) : ('17)1.3 ('18)△5.1 ('19)△1.3 ('20<sup>e</sup>)△11.5

글로벌 반도체 매출 추이(순환변동치)



\* 출처 : WSTS, 자체조정

반도체 가격 추이



\* 출처 : Gartner

② (향후 전망)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 개선, 비대면 수요 확대, 신산업 성장 등에 힘입어 반도체 업황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16	'17	'18	'19	'20 <sup>e</sup>	'21 <sup>e</sup>
* 글로벌 반도체 매출(억불)	3,389	4,122	4,688	4,123	4,331	4,694
<증가율(%), WSTS('20.12월)>	<1.1>	<21.6>	<13.7>	<△12.1>	<5.1>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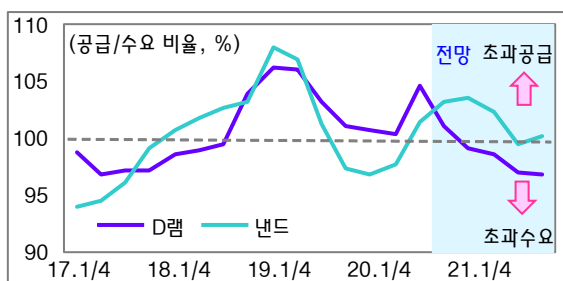
○ (메모리) 5G 도입 가속화 등에 따른 데이터센터 투자 회복 및 스마트폰 판매 확대 등으로 D램을 중심으로 수요·가격 회복 기대

\* 구글의 데이터센터 확장에 100억불 투자, 중국 정부의 5G 기지국 50만개 확대 계획 등

\* 스마트폰 출하 증가율 전망(% 카운터포인트리서치, '20.9월) : ('20<sup>e</sup>)△12 → ('21<sup>e</sup>)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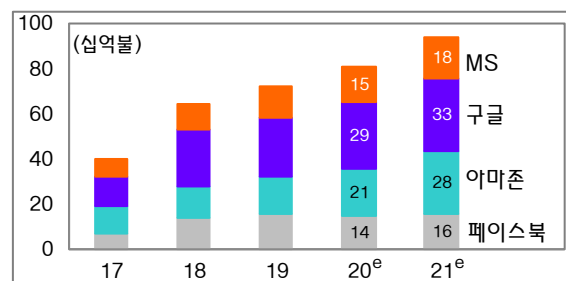
○ (비메모리) 자율주행차, 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투자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 예상

메모리반도체 공급/수요 비율



\* 출처 : Gartner('20.9월)

주요 글로벌 IT 기업 투자 추이



\* 출처 : 블룸버그

③ (우리 경제 영향)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시, 반도체 업황 회복은 내년 경기 개선을 상당부분 견인할 전망

- 최근 우리 경제의 수출·투자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높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동조화 현상 심화

\* 메모리 반도체 시장점유율(% '19, 상위3개사) : (삼성전자) 38 (하이닉스) 20 (마이크론) 18

\*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매출과의 상관관계수

: [수출] ('10~'15) 0.60 → ('16~'19) 0.95 [설비투자] ('10~'15) 0.46 → ('16~'19) 0.79

- 내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 시장점유율이 더욱 상승하면서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긍정적 파급영향이 확대될 가능성

\* 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약 10조원 규모) 인수('20.10월)로 시장점유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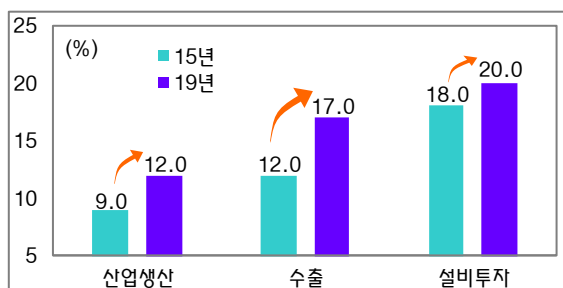
\*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21년 수출(통관) 2~3%p, 설비투자 1~2%p 제고 효과(자체추정)

- 다만, 우리 기업의 비메모리 부문 시장점유율은 아직 낮은 가운데, 메모리 부문의 기술격차 축소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 가능성

\*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점유율(% '19, 상위3개사) : (인텔) 21 (브로드컴) 6 (퀄컴)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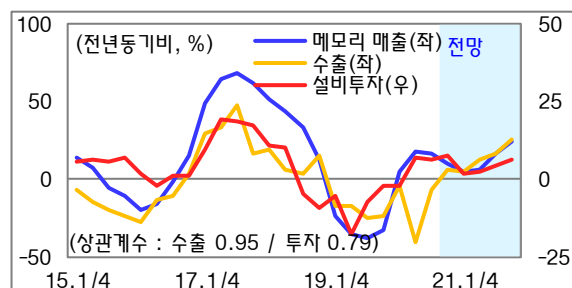
\* 美 마이크론은 세계 최초 176단 낸드플래시 메모리 개발 발표('20.11월)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 비중



\* 출처 : 통계청, 관세청, 한국은행  
\*\* 설비투자는 전기·전자업종 기준

글로벌 반도체 업황 및 수출·투자 추이



\* 출처 : 한국은행, 관세청  
\*\* 설비투자는 1분기 선행성 반영(1분기 선행 이동 비교)

④ (시사점) 향후 글로벌 반도체 업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반도체 및 신산업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노력 지속 필요

-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메모리 반도체 등 주력분야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비메모리 분야 경쟁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

- 특히,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시스템반도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인프라·R&D·인재양성 등 전방위적 지원 강화 필요

\*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규모 전망(억불, KISDI) : ('20) 185 → ('24) 439 → ('30) 1,179

\*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전략회의(年 1~2회)」 신설

- 우리 경제의 새로운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미래차·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유망 신산업 육성 노력도 가속화

## [참고 6] 설비투자 증가세 지속 가능성 점검

### ① (현황) 금년 들어 설비투자는 그간 부진에서 벗어나 큰 폭 증가

\*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기비, %): ('17) 16.5 ('18)△2.3 ('19)△7.5 ('20.1/4~3/4)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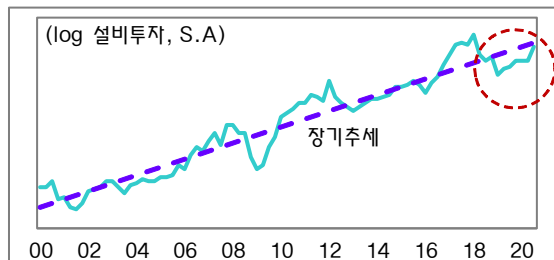
- IT 부문 등 전기전자 업종이 투자 증가세를 견인하는 가운데, 자동차업종 투자 증가 등으로 여타 업종의 투자 부진도 점차 완화

\* 상장사 재무제표상 설비투자 (전년동기비, %, '20.1/4~3/4) : (전기전자) 17.7 (자동차) 15.1  
<재무제표상 설비투자와 국민계정 설비투자 간 밀접한 관계 (상관계수: 0.8)>

### ② (향후여건 점검) ①순환국면, ②IT 부문 투자여력, ③거시경제 상황 등을 종합 감안시, 향후 상방요인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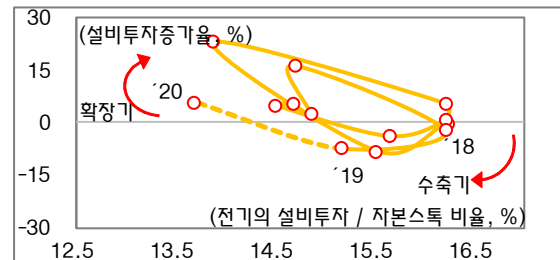
#### ① (순환국면) 설비투자는 여전히 장기추세를 하회하는 가운데, 최근 투자-자본스톡 순환도상 확장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

설비투자 장기추세



\* 출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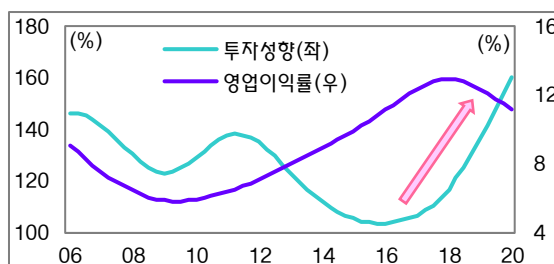
투자-자본스톡 순환도



\* 출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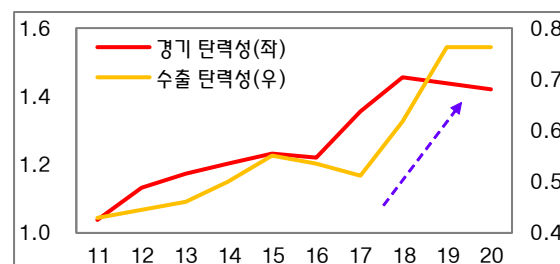
#### ② (IT부문 여건) 반도체 중심 매출 증가, 영업이익 개선 및 투자 성향(영업이익 대비 설비투자 비중) 확대 등으로 투자여력 양호

전기·전자 투자성향 및 영업이익률 추이



\* 출처: FnGuide

설비투자의 경기·수출에 대한 탄력성



\* 출처: 한국은행, 통계청 (자체 추정)

#### ③ (거시경제 여건) 최근 설비투자의 경기·수출에 대한 민감도 확대 → 내년 경기·수출개선 전망은 설비투자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③ (전망 및 시사점) 내년 설비투자는 코로나 상황 관련 불확실성은 있으나, 확장국면이 이어지면서 장기추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

- 민간투자 개선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투자애로 해소,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과 함께, 한국판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

### ③ [건설투자] 연간 1.0% 증가 전망

#### ① (주택건설) 최근 수주 및 착공면적 증가, 분양물량 확대 등 선행지표 개선 감안시 그간의 부진 완화 예상

- \* 주택수주(전년동기비, %) : ('18)△8.9 ('19)13.1 ('20.1/4)0.2 (2/4)40.5 (3/4)98.9
- \* 아파트 분양(만호) : ('19.1/4) 6.1 (2/4)9.3 (3/4)7.7 (4/4)11.9 ('20.1/4)4.0 (2/4)9.3 (3/4)12.5

#### ▪ 수도권 주택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도 주택건설 투자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

- \* LH 주택 건설 물량 조기착공('20.12월 +0.6만호, '21년 +0.1만호 추가 착공), 공실 상가 등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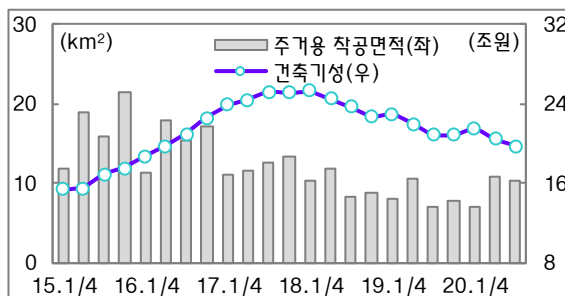
#### ② (비주거용 건물건설) 생활 SOC 투자 확대, 착공면적 증가, 설비투자 호조에 따른 공장 증설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 생활 SOC 예산(조원) : ('20) 10.5 → ('21) 11.0 [전년대비 +5.4%]
- \* 비주거용 착공면적(전년동기비, %) : ('19)△7.3 ('20.1/4) 7.0 (2/4) 3.7 (3/4) 18.4

#### ▪ 다만, 상업용 건물의 경우 자영업 업황 부진에 따른 상가 공실률 확대 등이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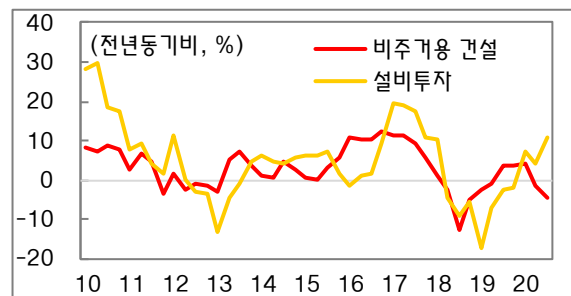
- \* 상가 공실률(% , 중대형, 기말 기준) : ('19)11.7 ('20.1/4)11.7 (2/4)12.0 (3/4)12.4

주택 착공면적과 건축기성 추이



\* 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청

설비투자과 비주거용 건설



\* 출처 : 한국은행

#### ③ (토목건설) 국가균형발전 추진 및 안전·재해예방 투자 확대 등 SOC 예산 확대 등에 힘입어 증가세 지속 전망

- \* SOC 예산(조원) : ('20) 23.2 → ('21) 26.5 <전년대비 +3.3조원>
- \* 도로·철도·저수지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재해예방 투자 확대(5.4→6.0조원)

⇒ ('21년 전망) 토목건설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물건설 부진도 완화되면서 그간 감소세에서 벗어나 1.0% 증가 전망

※ [참고 기] 건설경기의 구조적 전환 여부 평가 및 시사점

## [참고 7] 건설경기의 구조적 전환 여부 평가 및 시사점

- ① (최근 동향) 건설경기는 '18년 이후 주택부문 중심의 조정국면이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부진이 완화되며 구조적 전환 가능성 제기

	'15	'16	'17	'18	'19	'20.1/4~3/4 평균
* 건설투자 (전년동기비, %)	6.9	10.0	7.3	△4.6	△2.5	0.8
- 주거용 건설투자	17.7	23.4	15.3	△5.3	△11.9	△3.5

- ② (경기 평가) 선행지표, 순환국면, 정책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시, 건설경기는 내년중 완만한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① (선행지표) 최근 주택수주·인허가·착공 등이 모두 증가 전환  
→ 시차를 두고 건설기성에 반영

\* 수주는 약 2년/인허가는 약 1년반 선행, 착공은 약 30개월에 걸쳐 건설기성에 순차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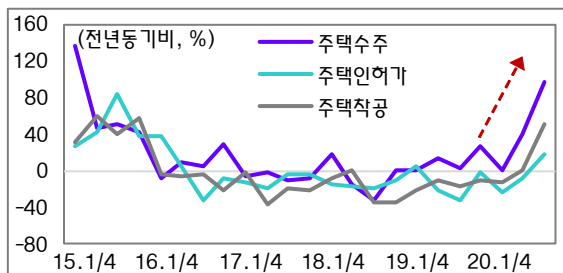
	'17	'18	'19.1/4	2/4	3/4	4/4	'20.1/4	2/4	3/4
* 주택수주 (전년동기비, %)	△7.1	△8.9	0.4	14.6	2.5	27.3	0.2	40.5	98.9
주택인허가 (전년동기비, %)	△10.0	△15.2	4.7	△21.9	△30.9	△2.3	△23.6	△8.1	18.8
주택착공 (전년동기비, %)	△21.6	△20.0	△21.8	△9.3	△16.3	△10.4	△13.0	1.4	50.0

- ② (순환국면) 코로나 상황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나, '17.2/4분기 시작된 경기 하강국면은 최근 기조 전환 조짐이 나타나는 모습

- 주요 기관들 대체로 내년 건설경기의 완만한 회복 흐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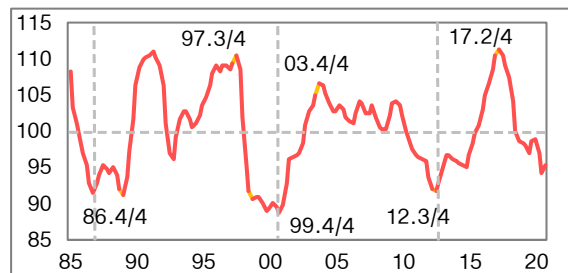
<'20→'21년 전망>	한은(11월)	KDI(11월)	금융연(11월)	현대연(10월)
* 건설투자 증가율(%)	△0.7 → 0.5	0.0 → 2.0	△1.0 → 1.3	0.2 → 1.9

주택수주·인허가·착공 추이



\*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투자 순환국면(순환변동치)



\* 출처 : 한국은행, 자체추정(Double-hp 필터)

- ③ (정책기조) SOC 예산 확대 등에 힘입어 토목건설 증가세가 지속되고, 주택공급 확대 정책 등도 긍정적 영향 예상

\* SOC 예산(조원, <증가율>) : ('19) 19.8<4.0%> ('20) 23.2<17.6%> ('21) 26.5<14.1%>

- ③ (시사점) 건설투자는 그간의 조정에서 벗어나 회복 흐름이 예상되나, 민간부문 회복세가 본격화될 때까지 공공부문의 보완 노력이 중요

-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SOC 디지털화, 생활 SOC 및 국가균형발전 투자 등도 신속 추진 필요

#### 4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연간 3.8% 증가 전망

##### ① (R&D투자)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투입 및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증가세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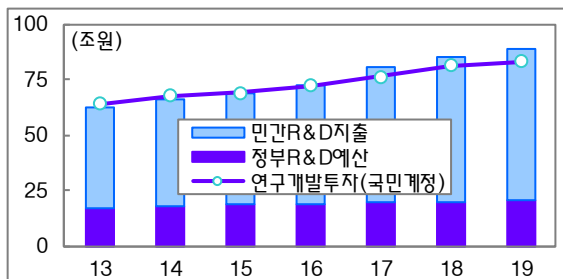
- R&D 예산은 한국판 뉴딜,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소재·부품·장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큰 폭 확대

\* R&D예산(조원) : ('18)19.7 ('19)20.5 ('20)24.2 ('21)27.4 [전년대비 +3.2조원]  
< '21년 중점투자 분야(조원) : (한국판뉴딜)1.9 (소재/부품/장비)2.2 (BIG3)2.3 >

- 민간 R&D는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노력 강화, 신성장기술 세제혜택 확대, 기술창업 확대 등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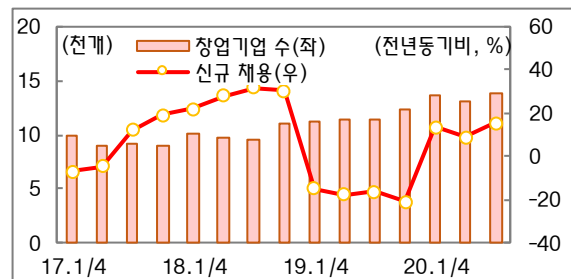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 우대 적용 및 지원요건 완화 등

정부·민간 R&D 지출 및 R&D 투자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창업·신규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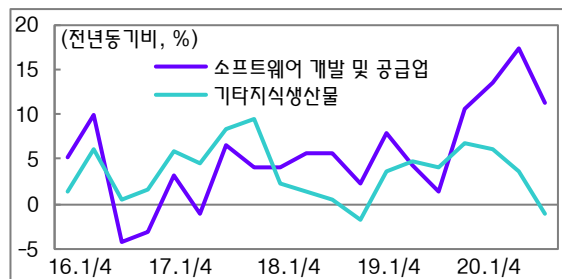


\* 출처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 ② (기타 지식재산생산물) 채택근무·원격회의 등 비대면 수요 확대, 공공 정보시스템 디지털화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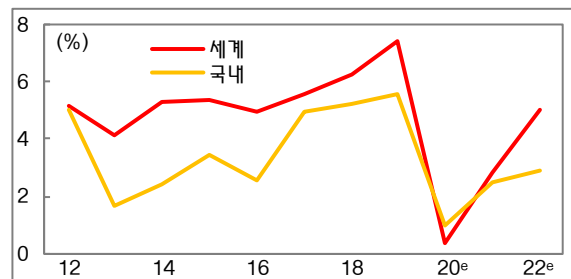
- 기업들의 클라우드 관련 소프트웨어 투자도 증가세 확대 예상

기타 지식재산생산물과 SW개발·공급업



\* 출처 : 한국은행, 통계청

국내외 소프트웨어 시장 전망



\* 출처 : IDC Worldwide Blackbook('20.10)

⇒ ('21년 전망) 한국판 뉴딜 등에 대한 정부 R&D 투자 및 비대면 관련 SW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3.8% 증가 전망

## 5 [수출(통관)] 연간 8.6% / [수입(통관)] 연간 9.3% 증가 전망

### ① (수출) 주요국 경기 회복 및 글로벌 교역 증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크게 반등하면서 '21년 8.6% 증가 전망

\* 세계교역 증가율(% , WTO) : ('19) △0.1 ('20<sup>e</sup>) △9.2 ('21<sup>e</sup>) 7.2

\* 반도체 매출 증가율(% , WSTS<'20.12월>) : ('19)△12.1 ('20<sup>e</sup>)+5.1 ('21<sup>e</sup>)+8.4

#### ▪ 품목별로는 반도체 및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증가 예상

①반도체·휴대폰·디스플레이는 5G 도입 본격화, 비대면 수요 확대 등으로 개선 흐름 지속

②자동차의 경우 전기차 등 전반적인 수요 회복이 예상되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글로벌 자동차시장 매출 전망(% , LMC automotive) : ('20)△16.7 ('21)10.7

\* 유럽·중국 등 주요국의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의무판매 기준 강화 등

\* '20.1~11월 수출 증가율(% ) : (전기차) 43.4 (바이오헬스) 51.6 <(의약품) 67.5>

③다만, 석유화학은 주요국 친환경·저탄소 이행 가속화 등으로, 선박은 '19년 이후의 수주 감소 영향 등으로 회복세 제약 소지

\* (美)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Net-Zero 달성

\* 선박 수주량(만CGT) : ('16) 224 ('17) 792 ('18) 1,341 ('19) 980 ('20.1~11) 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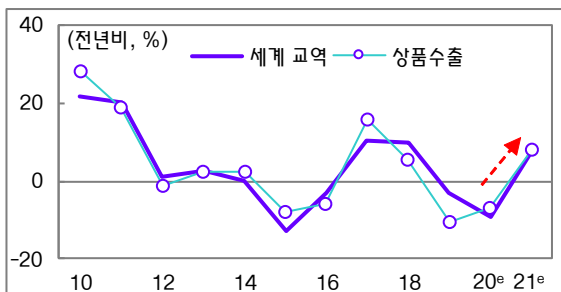
#### ▪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美·中·아세안 5개국 등을 중심으로 수출 개선 예상

\* '20→'21년 성장 전망(% , IMF<'20.10월>)

: (글로벌)△4.4 → 5.2 (中) 1.9 → 8.2 (美)△4.3 → 3.1 (ASEAN5)△3.4 →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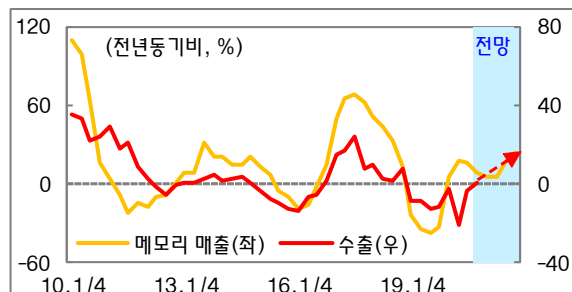
#### ▪ 코로나 상황 전개 추이,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변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상존

세계교역과 상품수출



\* 출처 : WTO, 한국은행

우리 수출과 글로벌 반도체 매출



\* 출처 : 무역협회, WSTS

② (수입) 내수·수출 동반 증가 등에 따라 수입도 금년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21년중 9.3% 증가 전망

\* 수입유발계수(한은, '18년) : (민간소비) 0.27 (민간투자) 0.29 (수출) 0.36

- 수입물량 회복 뿐만 아니라 유가 중심의 수입단가 상승 등도 통관수입 증가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국제유가(\$/b, CERA<'20.11월>, 두바이유) : ('19) 64 ('20<sup>e</sup>) 42 ('21<sup>e</sup>) 46

③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630억불 수준으로 전망

- 상품수지는 수출과 함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흑자 규모가 '20년과 유사한 수준 ('20년 765 → '21년 760억불)
- 상품외 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 소득수지 흑자폭 축소로 전체 적자폭이 확대 ('20년 △85 → '21년 △130억불)

① 여행수지는 금년 해외여행 위축 분위기가 내년 하반기 이후 완만히 개선되면서 적자규모가 재차 확대 예상

\* 여행수지(억불) : ('17)△183.2 ('18)△165.7 ('19)△106.7 ('20.1~10)△48.4  
- 해외순유출(해외출국자-방한관광객, 만명) : ('18) 1,335 ('19) 1,121 ('20.1~10) 133

② 운송수지의 경우 글로벌 교역 확대 및 화물운임 상승 등으로 개선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규모 확대를 완충

\* 운송수지(억불) : ('17)△54.2 ('18)△25.1 ('19)△16.2 ('20.1~10)8.7  
- 해상운임지수(기간평균) : ('19)808 ('20.1/4)933 (2/4)909 (3/4)1,209 (10)1,471 (11)1,877

③ 소득수지는 경기 회복에 따른 배당지급 증가, ODA 예산 증액에 따른 이전지급 확대 등으로 흑자규모 축소 전망

\* ODA 예산규모(조원) : ('16) 2.5 ('17) 2.7 ('18) 3.0 ('19) 3.1 ('20) 3.4 ('21) 3.7

경상수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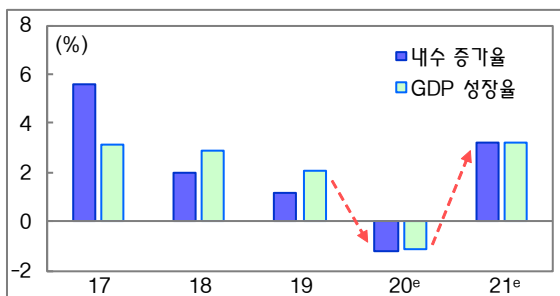
(단위: 억불)	2020년 <sup>e</sup>	2021년 <sup>e</sup>
▶ 경상수지 규모	680	630
▪ 상품수지	765	760
- 수출(통관)	△6.2%	8.6%
- 수입(통관)	△7.5%	9.3%
▪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85	△130

## 6 **【경제성장】** 실질GDP 3.2% 성장 전망 (경상GDP 4.4% 성장)

### **【실질성장률】**

- (성장 흐름) '21년 GDP는 금년 역성장( $\Delta 1.1\%$ )에서 벗어나 개선 흐름을 이어가면서 3.2% 성장 전망
  - 글로벌 경기 및 반도체 업황 개선, 확장적 거시정책·경제 활력 제고 등 정책효과가 내년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
    - \* 세계경제 전망(%,'20→'21년) : <성장, IMF>  $\Delta 4.4 \rightarrow 5.2$  <교역, WTO>  $\Delta 9.2 \rightarrow 7.2$
  - 다만, 코로나 상황 전개 추이 및 백신·치료제 개발 시기 등에 따른 성장경로상의 불확실성 상존
- (성장 구성) 내수·수출 모두 증가하면서 성장세 반등을 견인
  - (내수) 소비가 완만히 개선되는 가운데, 투자도 IT 부문 및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증가세 확대 예상
  - (수출) 글로벌 경기·교역 회복 등에 힘입어 반도체 및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큰 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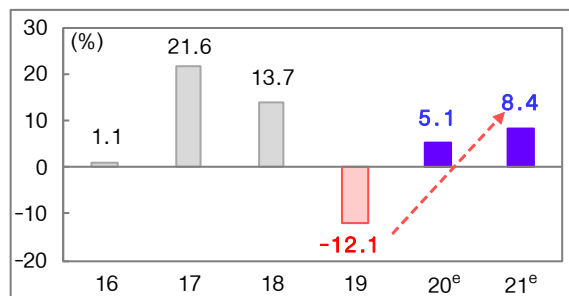
GDP 성장률과 내수 증가율



\* 출처 : 한국은행

\*\* '20~'21년은 정부전망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 증가율



\* 출처 : WSTS('20.12월 전망)

※ **【참고 8】**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회복경로 점검 및 시사점

### **【경상성장률】**

- 경상GDP는 실질성장률 개선(3.2%)과 함께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확대(1.2%)로 연간 4.4% 성장 예상
  - GDP 디플레이터는 글로벌 반도체 가격 회복 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내수 회복 등의 영향으로 1.2% 상승 전망

※ **【참고 9】** GDP 디플레이터의 장기 추이 및 향후 전망

## [참고 8]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회복경로 점검 및 시사점

① (現 상황)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의 방역 대응 과정에서 확산 정도에 따른 경제활동의 위축·회복 반복

○ 글로벌 경제는 금년 상반기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으며, 3/4분기 이후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

\* 성장률(전기비, %) : [2/4분기] (美)△9.0 (英)△19.8 (유로)△11.7 (日)△8.3 (韓)△3.2  
[3/4분기] 7.4 15.5 12.5 5.3 2.1

▪ 우리는 K-방역체계 구축, 과감한 정책 대응 등을 통해 경제적 피해 최소화 → 주요 선진국 대비 위기 이전 경제수준에 가장 근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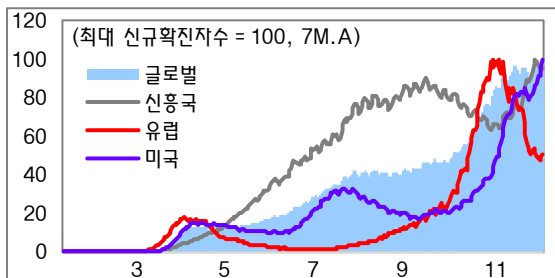
\* (OECD<'20.12월>) 한국은 방역체계 구축, 신속한 정책대응 등을 바탕으로 경제피해 최소화

\* 4차례 추경을 포함하여 총 310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대책 추진

<대출·보증 만기연장 등 간접지원 260조원 포함시 총 570조원, GDP의 1/3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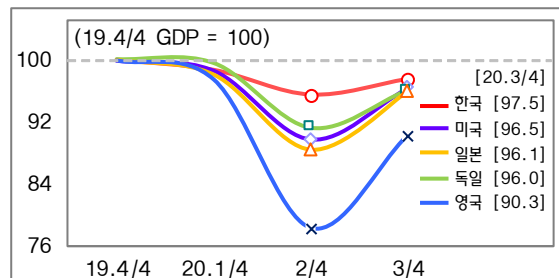
○ 겨울철에 접어들며 미국·유럽 등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 심화, 국내 재확산 추이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

글로벌 일일 신규확진자수



\* 출처 : Johns Hopkins

주요 선진국 GDP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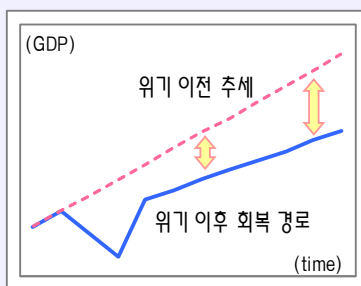


\* 한국은행,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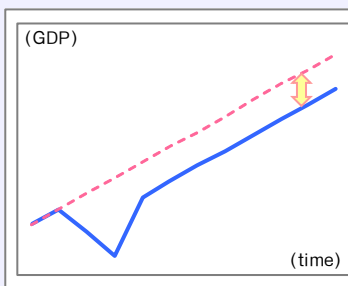
② (회복 경로) 내년 이후 글로벌 경제는 위기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성장세 반등이 예상되나, 회복 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 전망

### ※ 【참고】 경제위기 이후 3가지 회복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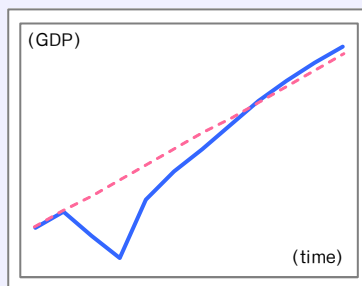
#### ① 성장추세 하락



#### ② 성장추세 회복



#### ③ 성장경로 업그레이드



✓ ①유형 : 성장추세 자체가 하락 → 항구적 손실이 지속 확대

✓ ②유형 : 위기 이전의 성장추세 회복, but 항구적 손실 발생

✓ ③유형 : 강력한 구조혁신을 통해 성장경로 업그레이드

- (단기) 내년 경기 반등폭은 백신·치료제 보급 속도 등이 관건
  - 확실한 백신·치료제가 보급될 때까지 코로나 영향이 잔존하며 주요국 GDP는 내년에도 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 예상
  - 우리나라의 경우 확장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철저한 방역통제 노력이 중요

OECD 주요국 '20~'21년 경제성장 전망('20.12월)

	한국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20년 성장률	△1.1	△3.7	△5.5	△5.3	△9.1	△11.2
'21년 성장률	2.8	3.2	2.8	2.3	6.0	4.2
<'19년 대비 '21년 GDP>	<101.7>	<99.4>	<97.1>	<96.9>	<96.4>	<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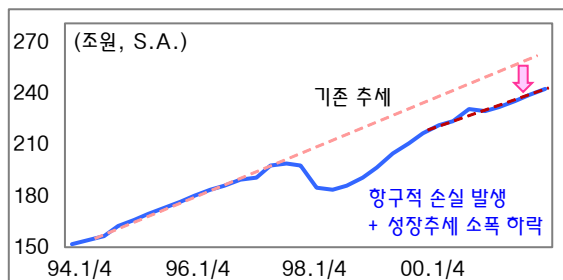
- (중장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구조적 대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구조혁신의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 성장경로 좌우

- 과거 '98년 외환위기,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회복 과정에서 항구적 경제 손실 발생과 함께 성장추세 자체가 하락했던 경험

※ (외환위기) 경제적 충격이 컸으나, 4대 부문(금융·기업·노동·공공) 구조개혁 등 강력한 혁신 노력을 통해 위기 이전의 성장추세를 상당폭 만회  
(금융위기) 산업부문 혁신 지체 등으로 중장기적 성장추세가 큰 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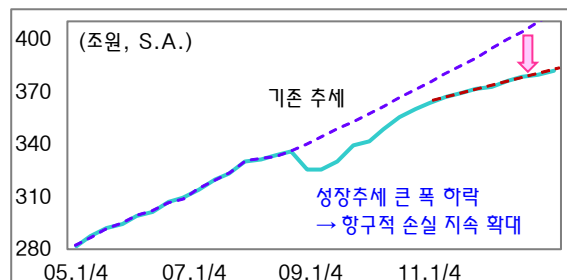
\*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p, 연평균) : ('92~'97) 3.3 → ('00~'08) 3.1 → ('11~'18) 1.3

'98년 외환위기 전후 성장경로



\* 출처 : 한국은행

'09년 금융위기 전후 성장경로



\* 출처 : 한국은행

- ③ (시사점)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확실한 경제반등 모멘텀 마련에 주력하면서, 성장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구조개혁 병행 필요

- ❶ 경기 회복세가 견고해질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소비·투자·수출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적극 추진
- ❷ 한국판 뉴딜 이행과제를 신속 추진하여 조기에 체감성과 가시화
  - 아울러, BIG3 등 신산업 육성, 제조업·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분야별 구조혁신, 포용기반 확충 등을 위한 정책 노력 강화

## [참고 9] GDP 디플레이터의 장기 추이 및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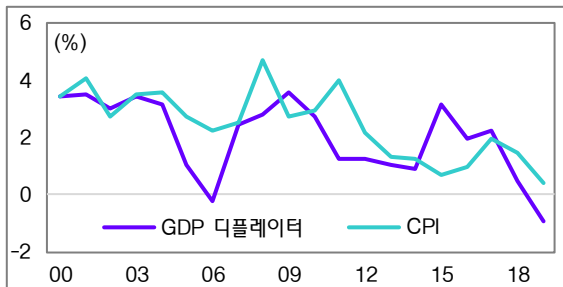
① (장기 추이) GDP 디플레이터는 여타 물가지표(CPI 등)와 유사하게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

- 특히, '12년 이후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큰 폭으로 등락 하면서 경상성장률의 변동폭 확대 요인으로 작용

※ 경상성장률 = 실질성장률 +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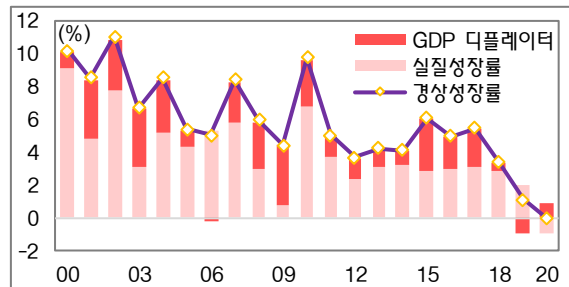
↳ 경상성장률 변동은 명목소득·채무부담·유효세율 등 국민경제에 영향

GDP 디플레이터 및 CPI 상승률 추이



\* 출처 : 한국은행, 통계청

실질·경상성장률 및 GDP 디플레이터 추이



\* 출처 : 한국은행 ('20년은 1/4~3/4분기 평균)

② (변동 원인) GDP 디플레이터는 내수·수출·수입 등 경제 전반의 물가 수준을 포괄하며, 국내요인 외 교역조건 변화에 따라 변동

※ GDP Deflator 상승률 = 내수 + 순수출(수출-수입) Deflator 상승률

- '12년 이후를 보면 내수 부문 디플레이터 보다는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수출·수입 디플레이터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

\* 내수 def. 상승률(%) : ('13) 0.2 ('14) 0.8 ('15) 0.3 ('16) 1.1 ('17)1.9 ('18)1.7 ('19)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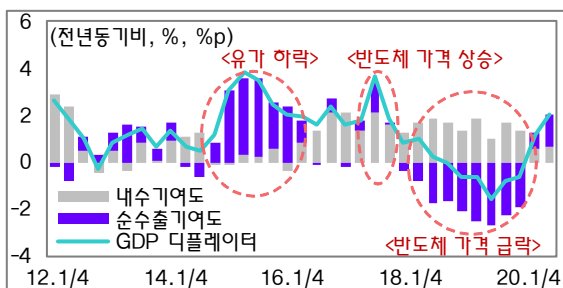
\* 수출 def. 상승률(%) : ('13)△4.8 ('14)△4.9 ('15) △4.9 ('16)△4.3 ('17)5.0 ('18)1.3 ('19)△4.8

\* 수입 def. 상승률(%) : ('13)△6.9 ('14)△5.7 ('15)△12.2 ('16)△7.6 ('17)4.7 ('18)4.7 ('19) 1.1

- 특히, 교역조건은 우리 수출·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가격 및 국제유가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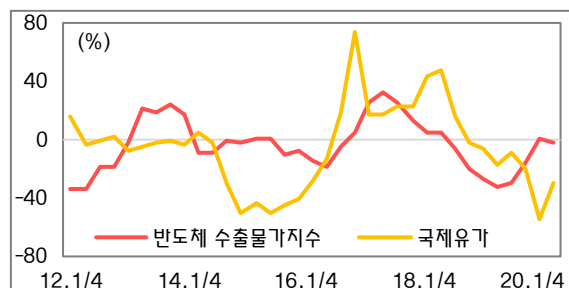
\* '19년 기준 우리 수입 중 원유 비중 14%<1위>, 우리 수출 중 반도체 비중 17%<1위>

부문별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기여도



\* 출처 : 한국은행

반도체 가격 및 국제유가 추이



\* 출처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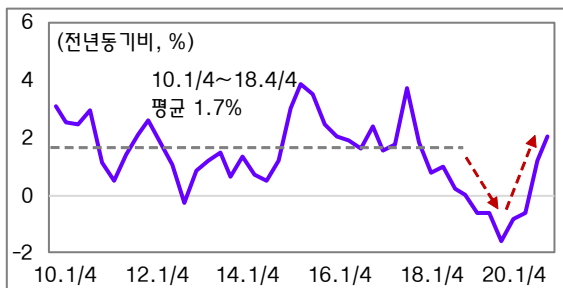
③ (최근 동향) '19.1/4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GDP 디플레이터는 '20.2/4분기 6분기만에 상승 전환

- \* GDP 디플레이터 (전년동기비, %) : ('19.1/4)△0.6 (2/4)△0.6 (3/4)△1.6 (4/4)△0.8  
(20.1/4)△0.6 (2/4)1.2 (3/4)2.0
- \* '19년에는 반도체 가격 급락 등으로 GDP 디플레이터가 전년대비 하락  
↳ Dram 8Gb 고정가격(\$/개) : ('18)7.9<전년대비 +19.1%> ('19)3.7<△53.5%>

○ 최근 GDP 디플레이터 상승은 국제유가가 큰 폭 하락하고 반도체 가격이 개선 전환되는 등 교역조건 반등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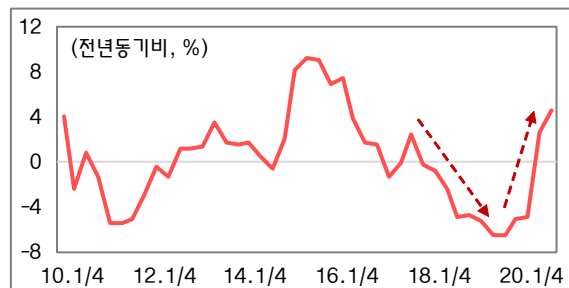
- \* 국제유가(\$/b, 두바이유) : ('20.1/4)50.4<전년동기비 △20.5> (2/4)30.7<△54.5> (3/4)42.9<△30.1>
- \* 반도체가격(Dram8Gb 고정가격, \$/개) : ('20.1/4)2.9<△44.8> (2/4)3.3<△10.4> (3/4)3.1<6.5>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 출처 : 한국은행

교역조건 변화율



\* 출처 : 한국은행

④ (전망 및 평가) 금년 GDP 디플레이터는 교역조건 개선 등에 힘입어 상승 전환(1.0%)되고, 내년에는 상승폭 확대(1.2%) 전망

○ 내년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는 가운데, 상방요인이 우세

- 비대면 수요 확대, 5G 투자 본격화 등에 따른 반도체 가격 회복, 경기 개선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 반도체 매출 증가율(% , WSTS<'20.12월>) : ('19)△12.1 ('20°)+5.1 ('21°)+8.4
- \*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 ('20°) 0.5 → ('21°) 1.1

- 다만, 국제유가 회복 등은 GDP 디플레이터 상승폭을 제약할 가능성

- \* 국제유가 전망(\$/b, CERA<'20.11월>, 두바이유) : ('20°) 42 → ('21°) 46

주요기관의 '20~'21년 디플레이터 전망 (%, <전망시점>)

	정부<'20.12>	예정처<'20.9>	OECD<'20.12>	IMF<'20.10>
'20년	1.0	0.6	1.2	0.9
'21년	1.2	1.1	1.1	0.9

⇒ 금년과 내년 GDP 디플레이터 상승은 명목소득 증가 등을 통해 소비 등 내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① [수요] 경기 회복, 일자리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 흐름 예상

- 내수·제조업 경기 개선, 고용 유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등이 노동수요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

\* 일자리 예산(조원) : ('20) 25.5 → ('21) 30.5 <전년대비 +5.0조원>  
↳ 직접일자리 지원규모(만개) : ('20) 94.5 → ('21) 104.2 <전년대비 +9.7만개>

- 최근 크게 증가한 일시휴직자는 경기 회복시 일자리로 복귀가 예상되나, 신규채용 여력을 제약할 가능성

\* 일시휴직자(만명) : ('18) 40.3 ('19) 40.7 ('20.1~11월 평균)84.5<전년동기비 +43.0만명>

※ [참고 10]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 분석 및 시사점 : 과거 위기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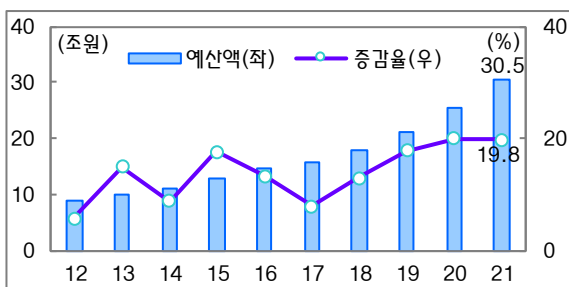
### ② [공급] 경제활동 참여 확대 예상,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제약요인

- 금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던 경제활동 참여가 점차 정상화되면서 노동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19→'20년 경제활동참가율(% , 1~11월 기준) : 63.4→62.6< $\Delta$ 0.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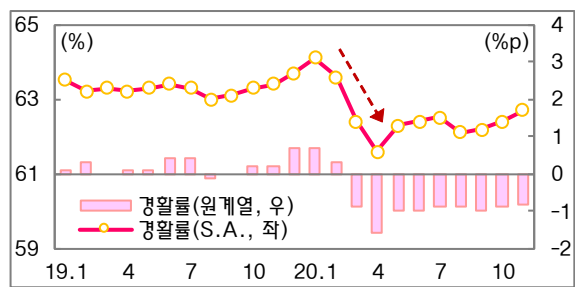
- 다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지속('20년  $\Delta$ 23.1 → '21년  $\Delta$ 22.5만명) 되며 취업자 증가를 구조적으로 제약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 추이



\* 출처 : 기획재정부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출처 : 통계청

### ③ ['21년 전망] 취업자 15만명 내외 증가 예상

- '21년 취업자는 경기 회복, 일자리 지원정책 확대 등에 힘입어 완만히 개선되면서 15만명 내외 증가 예상
- 고용률(15~64세)은 '20년(65.8%) 보다 소폭 상승한 65.9%, 실업률은 '20년(4.1%) 보다 소폭 하락한 4.0% 전망

## [참고 10]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 분석 및 시사점 : 과거 위기와 비교

### ① (동향)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되며 '20.3월 이후 취업자 감소세 지속

\*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 ('20.3)△19.5 (2/4)△40.7 (3/4)△31.4 (10)△42.1 (11)△27.3

- 금년 연간으로도 과거 '98년 외환위기, '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

#### ※ 【참고】 과거 경제위기사 고용충격 비교

	고용 감소 기간	취업자 감소폭 <sup>1)</sup>	위기 前 수준 회복 소요기간 <sup>2)</sup>
'98년 외환위기	'98.1~'99.4월	△106.9 만명	38개월(하강기 15/회복기 23개월)
'09년 금융위기	'09.1~'10.1월	△9.2 만명	16개월(하강기 6/회복기 10개월)
現 코로나 위기	'20.3월~	△33.9 만명	진행중

<註> 1) 취업자 감소폭 : 고용 감소 기간중 전년동월비 감소폭 평균

2) 계절조정 취업자수 기준(외환위기 당시는 통계청 시계열 부재, 자체 추정)

### ② (금번 위기 특징) 통상 위기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충격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번 위기는 충격의 속도·대상 등에서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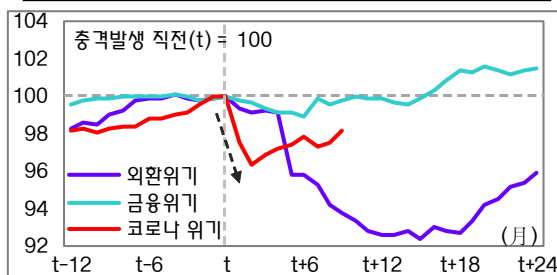
#### ① (가파른 충격) 코로나 사태 초기의 급격한 이동성 위축으로 여타 위기 대비 단기간내 취업자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충격발생 직후 2달간 고용 감소폭(SA 누적, 만명)

: (외환위기)△18.3 (글로벌 금융위기)△9.4 (코로나 위기)△1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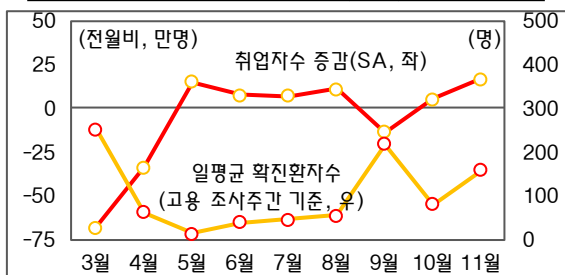
- 5월 이후 완화되던 고용 부진이 8월 중순 코로나 재확산으로 재차 위축되는 등 감염병 충격 정도가 고용지표에 즉각적으로 반영

위기별 고용충격 경로(SA 취업자수 기준)



\* 출처 : 통계청

확진환자수 및 취업자수(SA) 증감 추이



\* 출처 : 통계청·질병관리청

#### ② (불균등한 충격) 고용 안정성이 낮은 대면서비스업의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어려움 가중

\* 취업자 증감('20.3~11월 전년동기비 평균, 만명)

[업종별] (제조업)△6.3 (건설업)△0.7 (서비스업)△31.5 <(대면서비스업)△46.4>

[지위별] (상용직)26.4 (임시·일용직)△47.0 (자영업자)△9.2

\* 대면서비스업 :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교육 등

-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조업·상용직 등의 어려움도 점차 가시화

\*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 [제조업] ('20.3)△2.3 (2/4)△5.5 (3/4)△5.7 (10)△9.8 (1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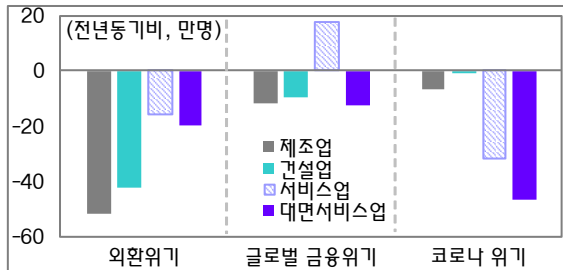
[상용직] ('20.3) 45.9 (2/4) 38.1 (3/4) 24.1 (10) 1.4 (11) 3.8

- 특히, 전 세계적인 경기 위축 및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신규채용 위축 등으로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 기회마저 찾기 어려운 상황

\* 대졸신입 채용 기업 비율(% , 인크루트 상장사 대상 설문조사) : ('19) 85.5 → ('20) 6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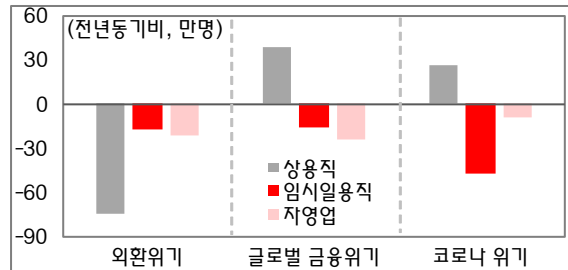
\* 청년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 ('20.3)△22.9 (2/4)△19.9 (3/4)△19.5 (10)△25.0 (11)△24.3

위기별/업종별 고용충격



\* 출처: 통계청

위기별/종사상지위별 고용충격



\* 출처: 통계청

### ③ (일시휴직자 급증) 고용유지 지원 정책 등으로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해고보다 휴직으로 대응 → 일시휴직자가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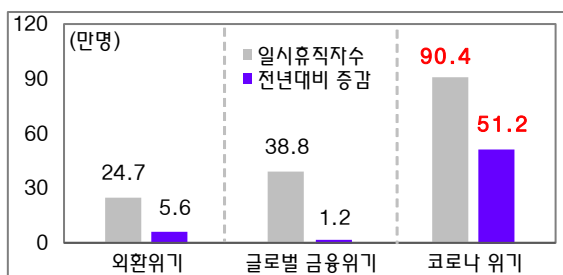
\*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비율 상향(휴업·휴직수당의 최대 2/3 → 9/10, 일반업종 기준),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여행업 등 8개 업종), 지원기간 연장(180 → 240일) 등

\* 일시휴직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 ('20.3)126.0 (2/4)72.5 (3/4)26.6 (10)19.0 (11)18.9

- 이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충격을 완충하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신규 고용 창출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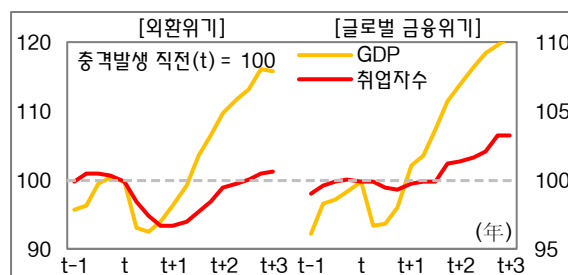
\* 통상 과거 위기시 경기회복 이후에도 상당기간(6개월~1년)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경향

위기별 일시휴직자수 및 증감



\* 출처: 통계청

과거 위기시 경기·고용 회복 경로



\* 출처: 한국은행, 통계청

### ③ (전망 및 시사점) 내년에는 고용도 경기와 함께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되겠으나, 회복 속도는 고용이 경기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20→'21년 전망 : (경제성장률) △1.1 → 3.2% (취업자수 증가) △22 → 15만명

- 민생안정을 위해 민간의 고용유지·확대 유도,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한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노력 긴요
- 특히, 일 경험 기회마저 잃고 이력현상(hysteresis)에 빠질 위험에 직면한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필요

\* '10만 일경험 지원' 등을 통해 일 경험 기회 확대, 수요자 중심 구직정보 제공 등

## ◇ '21년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1.1% 상승 전망

## ❶ (공급측면) 유가, 농산물 가격 등 부문별 상하방 요인 혼재

- 글로벌 수요 반등 등에 따른 국제유가 회복은 석유류 가격 등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 농산물의 경우 '20년 기상여건 악화(역대 최장기간 장마 등)에 따른 기저 영향 등으로 금년보다 가격 오름폭 둔화 전망

\* ①(채소) 배추·양파 등 주요 품목의 재배면적 증가 등으로 가격 하락 전망

②(과실) '20년 생산량 감소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나, 하반기로 갈수록 생산량 회복 등으로 가격 안정화 전망

<'20년 생산량 증가율(%), 농촌경제연구원> : (사과)△15.6 (배)△21.8 (포도)△17.4>

## ❷ (수요측면) 내수 회복 등으로 물가 상승압력 확대 예상

-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지속 등에 따른 시중유동성 증대도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광의 통화(M2, 평잔, 조원):('18)2,627 ('19)2,810 ('20.6)3,077 (7)3,092 (8)3,102 (9)3,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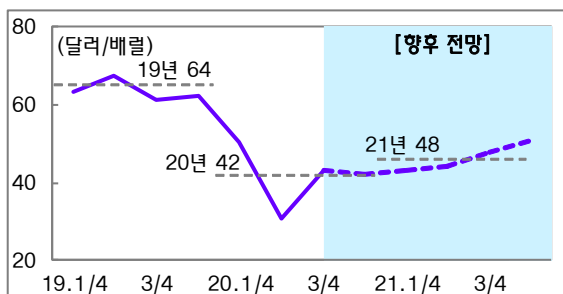
## ❸ (정책요인) 내년에도 복지정책 강화 등이 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그 정도는 금년보다 축소될 것으로 전망

\* 흥부초음파·심장초음파·척추 MRI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 금년 이동통신요금 지원('20.10월),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조기 확대\* 등에 따른 기저 영향으로 물가 하방압력 완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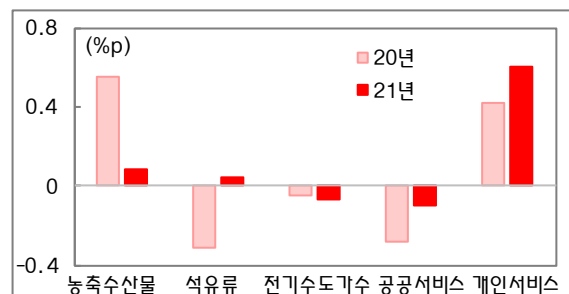
\* 당초 '21년 시행 예정 → 대구·경북은 '20년 1학기, 서울·부산 등 11개 시도 2학기 지원

국제유가 예상경로



\* 출처 : EIA, 전망은 자체추정

품목별 기여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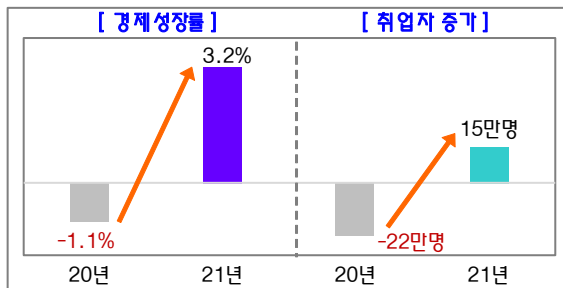
\* 출처 : 자체 추정

### Ⅲ. 종합 평가

#### ◇ '21년 우리 경제는 반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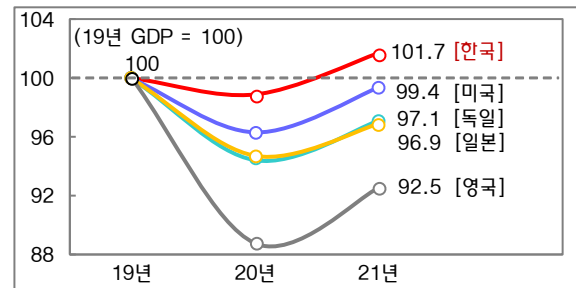
- 내년 우리 경제는 내수·수출이 동반 개선되면서 성장세 반등('20년  $\Delta 1.1 \rightarrow$  '21년 3.2%) 및 취업자 증가 전환( $\Delta 22 \rightarrow 15$ 만명) 전망
  - 금년 과감한 정책대응을 통해 경제피해를 최소화한 데 이어 내년에는 주요 선진국 대비 빠른 속도로 위기 이전 수준 회복 예상
  - 다만, 코로나 상황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소비·고용의 개선 속도가 경기 회복세에 미치지 못하면서 민생 어려움 지속 우려

경제성장률 및 취업자증가 전망



\* 출처 : 기획재정부

주요 선진국 성장률 전망



\* 출처 : OECD('20.12월)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화 및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인구·가구·지역 등의 구조적 변화도 가속화될 전망
  - 이에 따른 구조적 대전환 노력이 지체될 경우, 글로벌 경쟁력 약화 및 잠재성장률 둔화도 우려되는 상황

#### ◇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노력 강화 필요

- 당면한 코로나 위기의 온전한 극복을 위해 상반기중 확실한 경기반등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책역량 총집중
  - 코로나 상황의 불확실성을 감안, 방역 안정을 전제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긴요
-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경로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적 토대 공고화에도 속도낼 필요
  -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선제적 미래대비와 함께 구조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포용성 강화 노력 병행

## 2020~2021년 경제전망 요약

(전년동기비, %)

	'19년	'20년				'21년 전망
		1/4	2/4	3/4	연간 <sup>e</sup>	
전망 전체						
세계경제(PPP) <sup>1)</sup>	2.8	-	-	-	△4.4	5.2
Dubai 유가(\$/bbl) <sup>2)</sup>	64	50	31	43	42	46
실질 GDP	2.0	1.4	△2.7	△1.1	△1.1	3.2
민간소비	1.7	△4.8	△4.0	△4.4	△4.4	3.1
설비투자	△7.5	7.3	4.1	10.6	5.8	4.8
건설투자	△2.5	4.2	△0.1	1.0	△0.2	1.0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0	2.4	4.1	3.9	3.7	3.8
경상 GDP	1.1	0.7	△1.6	0.8	△0.1	4.4
취업자 증감(만명)	30	28.8	△40.7	△31.4	△22	15
고용률(15~64세, %)	66.8	66.1	65.6	65.9	65.8	65.9
소비자물가	0.4	1.2	△0.1	0.6	0.5	1.1
경상수지(억달러)	600	133	58	241	680	630
상품수지(억달러)	769	150	90	259	765	760
수출(통관)	△10.4	△1.8	△20.3	△3.4	△6.2	8.6
수입(통관)	△6.0	△1.8	△16.0	△8.9	△7.5	9.3
서비스·본원·이전 소득수지(억달러)	△169	△17	△32	△18	△85	△130

1)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0월)

2) CERA('20.11월)

## 2021년 경제전망 담당자

분	아	담	당	자	연 락 처
		[ 사 무 관 ]			(044-215~)
G D P · 총 괄		종 합 정 책 과	신 동 현	신 채 용	2713 2714
산 업 생 산		경 제 분 석 과	이 중 진	( 서 기 관 )	2731
민 간 소 비		경 제 분 석 과	신 태 섭		2732
수 출 입		경 제 분 석 과	김 태 순		2734
세 계 경 제		경 제 분 석 과	오 다 은		2733
투	자	경 제 분 석 과	이 병 준		2736
재	정	거 시 정 책 과	박 정 상		2832
고	용	정 책 기 획 과	윤 현 곤		2812
물	가	물 가 정 책 과	진 승 우		2771
부 동 산 시 장		부 동 산 정 책 팀	김 애 리		2852
가 계 부 채		자 금 시 장 과	유 근 정		2755
금 융 시 장			정 영 주		2754
국 제 금 융 시 장		국 제 금 융 과	이 용 준		4716
외 환 시 장		외 화 자 금 과	이 상 민		4733